

참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며 후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음을 감사하며, 마지막 추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진리에 바라는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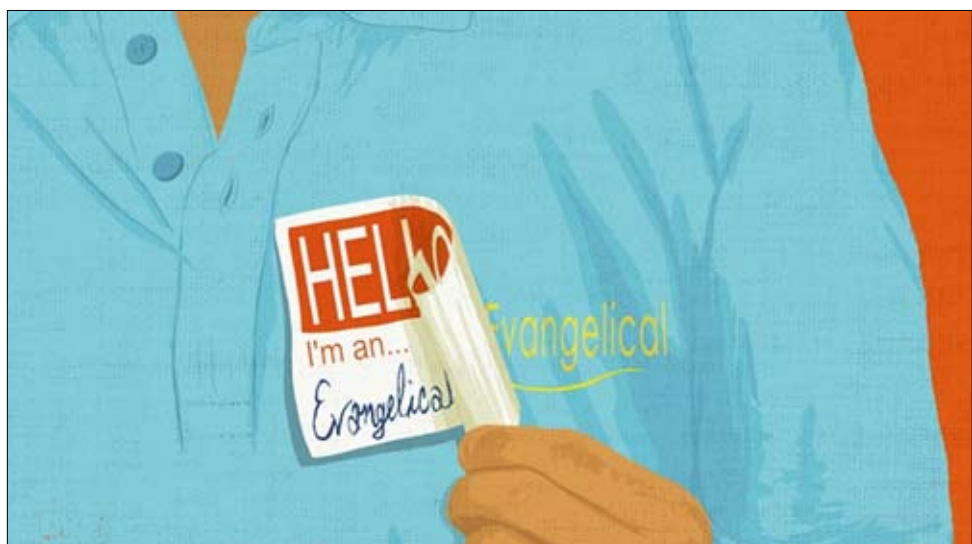
주후 2018년 3월 10일 (토) 제 167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복음주의’ 인식표 버린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CT, 테드 올슨, “복음주의 정체성보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때, 세상은 복음 알게 된다” 역설

지난해부터 크리스치니티투데이(CT)는 한층 불거진 “복음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주의의 “독특성”을 유지하며, 복음주의자로서 살아가갈 수 있는 가에 대한 것을 특징(Evangelical Distinctives)으로 연재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 사회에서 문화와의 긴장 가운데에서도 뚜렷하고 구별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복음주의의 역사와 정체성이 단지 정치집단화 되고 있는 현상에서, 다시 한번 복음주의를 엄밀하게 재규정해보자는 몸부림이다.

CT 편집인 중 한 명인 테드 올슨(Ted Olsen)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단순히 버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주의를 오해하고 편협 되게 바라보다 해도, 복음주의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복음주의의 독특성을 토로한다 (One Does Not Simply Leave Evangelicalism: We agree: It’s a broken word describing broken people in a broken movement. It’s still Good News).



복음주의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주의의 독특성을 유지하며 복음주의자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해는 된다. 하지만 불만스럽기도 하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 말에 담는 의미는 우리가 이 말에 담는 의미와는 다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복음주의자들”의 수를 셀 때, 그들은 보통 우리가 세는 방식과는 다르게 센다. 그리고 이른바 “복음주의 지도자”가 어떤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역시 그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싶어진다.

복음주의를 정치적인 운동으로 정의 내리는 것은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니다. 여론조사, 정치인, 그리고 언론이 정치적인 렌즈를 통해서 어떤 그룹을 볼 때, 그 대상에 대한 그들의 주된 질문은 이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이것 역시 놀랄 일이 아니다. 복음주의라는 용어가 대중 언어가 된 때는 1970년대 중반이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지미 카터가 복음주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였다.

복음주의자라는 말이 정치화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복음주의자”로 불린다는 사실에, 매우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좌절감을 느낀 나머지 이 용어를 지켜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냥 정치적 복음주의자들에게 이 용어를 쫓겨버려라.” 노던신학교 신약학자 스톱 맥나이트가 블로그에 올린 제안이다. “그 사람들을 빼고, 우리는 우리를 그냥 크리스천이라 부르자.”

베일리의 토머스 키드도 “가스펠 코얼리션(Gospel Coalition)”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동일한 제안을 했다. “그냥 당신의 교단

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줘라(나 같은 경우에는 ‘침례교인’이라고). 아니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또는 복음적 크리스천(Gospel Christian)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다.”

같은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들 말고도 더 있다. 예를 들어, ‘프린스턴 복음주의(Evangelical)협회’는 그 이름을 ‘프린스턴 크리스천(Christian)협회’로 바꾸었다.

60년 동안 “복음주의 신념을 가진 매거진”을 표명한 “크리스치니티투데이” 라면 이 용어를 지켜내야 한다고, 복음주의 지성들을 필사적으로 설득하리라 기대할 것이다. 정말이지, 우리는 여전히 이 용어를 좋아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

성·복음 전도 같은, 우리 신앙의 중심 교의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용어를 찾고자 애쓰고 있는 진정한 복음주의자들에게 어떤 유감도 없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의 인식표로서의 “복음주의”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부풀릴 가능성만 더 커진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해서,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로 부르는 것을 그만두지는 말자. 최상급 여론조사들 가운데 다수는 우리가 복음주의자인지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

<3면으로 계속>

막힌 담 없는 우리 다락방이 참 좋다!

스몰그룹.컴, 장벽 없는 소그룹 만드는 원리 소개

자녀가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부모를 흡족하게 하는 일은 드물다. 맘대로 놀이터에 놀러 나가거나 학교에 간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심히 아플 것이다. 위에 언급한 놀이터나 학교를 우리가 섬기는 소그룹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소그룹으로 자신의 자녀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가 소그룹으로 보내진 영혼들을 외면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느끼실 고통을 상상해보면 이 책임의 막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장벽을 높이 세우고 닫혀있는 소그룹이 아닌, 세상과 영혼들을 향해 열려있는 소그룹을 세울 수 있을까?

방향하는 영혼들을 품는 마음 갖기

우리는 분열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많은 현대인들은 이직과 실직, 구직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살아간다. 학업을 위해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경우도 많다. 그 결과 많은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환경과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많은 이들이 가족이나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만들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생명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느끼게 해 줄 경험과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필

요한 영적 가족은 바로 ‘소그룹’이다. 지금은 소그룹 구성원들이 모두 이러한 인간의 필요를 이해하고, 편안한 안전지대에서 과감히 벗어나 전도의 문을 열고, 영혼을 품는 소그룹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필요할 때다.

전도의 본질 공유하기

세상 속에서 방향하는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전도라고 할 수 있다. 성도들은 전도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p>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p> <p>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p>	<p>ATS 정회원</p> <p>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p> <p>www.wmu.edu</p>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온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innet Hill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핸드폰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gospelmall@hotmail.com

 <p>시론 은회근 목사</p> <p>2면</p>	 <p>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p> <p>7면</p>	 <p>특별기고 전호진 박사</p> <p>14면</p>	 <p>인터뷰 자 두 사모</p> <p>16면</p>
--	--	---	--



Division of Faith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미주한인교회 송구영신예배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성탄 축하예배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T. 877.922.6679

한국어. 714.367.3046

www.caravancanopy.com

‘테러 감행’ 무슬림이 진짜 무슬림인가?

CT. 현재 이슬람권에서 논쟁되는 IS의 무슬림공동체 정체성 논란 보도

이집트 크리스천들에게 2017년은 사상 최악의 해였다. 그러나 테러리스트나 종파 갈등에 희생당한 최소 117명 가운데 콥트 교회 신자는 12%에 지나지 않았다. 이슬람국가(IS)가 콥트 신자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에 가장 많이 희생된 사람들은 무슬림들이다. 같은 신자들의(그들을 신자라고 할 수 있다면) 손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것이다.

대체로 이슬람 세계 바깥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이슬람을 잘 모

르겠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위안이 될 만한 사실이 있다: 이집트 무슬림들조차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해 한다.

따라서 크리스천티투데이(CT)는 이슬람권에서 혼동이 되고 있는 누가 진정한 무슬림인가에 대한 논란을, 카이로 주재원 (Jason Kasper)의 보고를 통해 분명하게 짚어준다 (Is ISIS Really Muslim?: Christians can learn from Egyptian debate over terrorism and true Islam).

사레가 될 만한 비극이 지난 12월에 일어났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수피 교단 모스크에서 300명이 넘는 수피 무슬림들이 처참하게 살해됐다. 수피 무슬림은 신비주의 의식을 통해 알라와 영적 합일을 추구하는 이슬람 종파로 유명하다. 그들 중에는 무슬림 성자들의 묘지를 찾아가서 중보기도를 하는 신자들도 많다.

카이로에 있는 어느 상류계층 단체에서 이 참사를 두고 격의 없지만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 교육 수준이 높은 한 이집트 여성의 입에서 이 사건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당시에는 이슬람 신앙을 떠나는 것은 또한 무슬림 국가에 대한 반역을 뜻했다.

그런데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일부 이슬람 정파들과 살라피가 정부나 사람들의 신앙 부족을 공격하면서 ‘타크피르’의 용도가 되살아났다. 지하디스트가 타크피르를 이용하게 되면, 이것이 재앙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집트 개신교회 연합회 회장 안드레아 자키는 모든 무슬림을 하나로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무슬림들도 지구상에 있는 다른 종교인들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

모든 무슬림을 하나로 싸잡아 비난... “일반화 하지 말라”
 ‘이슬람과 관계없다’ ‘이것이 이슬람이다’ 모두 불공평
 테러리즘에 대한 무슬림지도자의 분명한 입장 밝혀야 할 때

그래요. 하지만 그들은 수피교도들이에요.” 동료들에게 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진정한 무슬림이 아니에요.”

그 테러를 무시하지도 옹호하지도 않았지만, 이 여성의 생각은 또 다른 무슬림 종파인 ‘살라피(Salafis)’의 가르침에 깊이 동화된 것이었다. 살라피는 수피의 신비주의를 정통 이슬람의 한계 바깥에 있는 것으로 단정한다. 그래서 살라피가 지하디스트(이슬람 무장투쟁 전사)가 되는 순간, 그들은 수피를 배교자로 여겨 거리낌 없이 살해할 것이다.

중류계층에 속하는 카이로의 한 택시 운전기사는 모스크와 교회를 공격하는 이슬람국가의 범죄 행위를 성토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들도 그들이 무슬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들은 무슬림입니다.”

이런 상반된 시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모스크에서 기도하고 있던 무고한 희생자들은 무슬림 신앙 밖에 있고, 그 문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행을 저지른 살인자들은 무슬림 신앙 안에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랍어 타크피르(takfir)라는 개념에 대한 이슬람 세계 내부의 논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크피르’는 어떤 사람을 ‘카피르(kafir-불신자)’로 선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타크피르는 파벌적인 유죄 선고입니다.” 터키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이슬람의 예수(The Islamic Jesus)”의 저자인 무스타파 아크울은 말했다. “이 말을 갖고서 이슬람국가가 동료 무슬림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주류 (이슬람)기관들은 그들(이슬람국가)을 이슬람 밖으로 내몰기만 할 뿐이지 그들의 만행 뒤에 도사리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타크피르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단어의 아랍어 어근 ‘쿠프르(kufr)’는 단순히 불신앙을 의미할 뿐이다. 이 말은 무슬림이 아

닌 어떤 사람에게나 적용된다. 어느 정도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거둬 나지” 않은 사람들을 ‘타크피르’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런데 살라피가 수피를 대할 때처럼, 비정통적인 관습을 행하는 어떤 무슬림을 ‘카피르’(?)로 더 심하게는, 배교자(?)로 선언하는 것은 타당한 것일까?

“쿠란에 배교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아크울은 말했다. “그런데 고전 이슬람 법학이 이것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 있습니다.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온건한 무슬림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이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비전을 심어줘야 합니다.”

수피를 지나치게 구별해서도 안 되지만 이들은 살라피보다 훨씬 온건하다고 자기는 설명했다. 이집트인들 가운데 수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이 수피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이 점은 파키스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콜롬비아 인터내셔널대학교의 무슬림 연구소 명예 교수인 워렌 라슨이 말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중국 허베이성 쉬저장 예리촌에는 뻣뻣한 나무들이 파란 잎을 뽐내는 근사한 숲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숲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치’와 ‘하이샤’가 일궈낸 거대한 ‘인공 숲’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치’는 세살 무렵 감전 사고로 두 팔을 잃었고 ‘하이샤’는 마을 채석장 폭파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묘목을 기르고 그것을 팔아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용수로도 변변치 않은 돌투성이 황무지에 처음 심은 800그루의 나무 중 살아남은 나무는 단 두 그루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니 그만 두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서로의 눈과 팔이 되어 꾸준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 허허벌판 황무지였던 땅 위에는 1만 그루의 큰 나무숲이 생겼습니다. ‘하이샤’는 말합니다. “‘원치’는 저의 눈이고, 저는 ‘원치’의 두 손입니다. 둘이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나무를 내다 팔아 돈을 벌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자식처럼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의 모습과 후세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에 차마 나무를 벨 수 없었다고 합니다”(편은 글).

참 귀한 인내요, 꿈입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결국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황재를 바랍니다. 허깨비를 쫓아 평생을 큰소리만 뻔뻔 치며 살다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중간에 포기해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다말다’ 하면, 결국 ‘하나마나’가 됩니다. 두 팔이 없는 ‘원치’와 두 눈이 없는 ‘하이샤’가 돌덩이들이 가득한 황무지에 800그루의 나무를 심어 2구루밖에 안 남았을 때 그들은 포기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포기했으면 ‘하나마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15년 동안 꾸준히 나무를 심었고 그 결과 드디어 1만 그루의 나무 숲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하다” 보면 “된다된다”가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또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눅 8:15). 우리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말씀을 지키며 선을 행한다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결실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이어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여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뤄낸 결말’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결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결말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준비하신 결말을 그냥 확실히 지나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 ‘하다말다’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읽다말다, 기도도 하다말다, 봉사도 하다말다, 신앙생활도 하다말다 했기에... 결국 결실의 열매는 하나도 못 이루고 ‘하다말다’해서 ‘하나마나’ 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준비하신 결말을 내 인생 안으로 불들어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하다” 보면 “된다된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인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목표는 “주께 가까이”입니다.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주께 가까이 가다보면 따라오는 선물일 따름입니다. 주께 가까이 가다보면 어느덧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어느덧’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사단과 마귀가 자주 시험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이때 마귀가 주는 낙담, 불안에서 자유하려면, ‘솔데없는 근심과 걱정은 깎아서 내어버리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며, ‘주께 가까이 가는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봄이 다가옵니다. 올 한해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다말다’하면 ‘하나마나’가 되고, ‘하다하다’보면 ‘된다된다’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주께 한결음이 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면,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안에, 내 자녀들의 인생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역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여호와의 행적들이 많이 나타나시는 한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pastor.eun@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865-0009(대 표) (323)865-9025(광고국)
· Fax:(323)865-0056(편집국) (323)8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복음주의' 인식표 버린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1면에서 계속)

그들은 어떤 교회나 교단에 속해 있는지 묻고는 "복음주의자" "주류 개신교인" "혁신 개신교인" "기타"로 코딩한다. 우리가 "침례교인"이라고 응답하더라도, 해당 여론조사는 우리를 그렇게 분류하지 않는다.

교회 소속이 아니라 본인 확인 방식을 사용하는 설문조사도 "귀하는 복음주의자입니까?"라고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신에 "귀하는 스스로를 거듭난 크리스천, 또는 복음주의의 크리스천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한다. 성경에 이런 용어가 없다거나 하는 여러 이유로 "복음주의"라는 부분에 주저 없이 "아니요"라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거듭난"이라는 부분을 거부하는 데는

주저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명하셨으니 말이다.

바나 그룹이나 라이프웨이 리서치 같은 설문조사 기관들은 믿음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그 응답에 따라 "복음주의자"인지 아닌지를 선택한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죄의 형벌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희생이다" 같은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음주의자로 선택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복음주의자"라는 용어가 복음주의 운동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 용어와 연관돼 있는 우리의 현실을 피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 용어를 피하는 것이 꼭 정당한 만한 일도 아

니다. 어떤 부류의 크리스천들에게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단절하고 싶은 충동은, 복음주의 운동의 가장 나쁜 경향성들-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가운데 일부다.

기독교의 비극적 영광은 예수께서 정말로 죄 많은 인간들을 택하셔서 이 땅에서 그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가 다시 오셔서 만물을 고치시기 전까지는 계속 서로를 헐뜯을 것이다. 그 동안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채근할 것이다. 성경은 거짓 교사, 사기꾼, 그리고 게으른 크리스천들을 훈계하고 바로 잡고 분리시키라고 명한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환멸이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 그들을 외면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주의자"라는 이 인식표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복음주의자들도 인간송배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영웅송배는 그런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잘못된 희망이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를 사랑하고 성경을 지니고 다니며 화해를 도모하는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 운동을 표현하는 더 나은 말이 존재할 수도 있다.

첫 제자들은 그 도를 쫓는 사람들, 나사렛당이라고 불렸다. 안디옥에서 "크리스천"(아마도 경멸 섞인 말이었을 것이다)이라 불리우기 전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불렸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이웃에게 드러내는 최선의 용어는 "크리스천"일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라고 비방, 명목주의, 그리고 가짜에 의해 오염되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다.

막힌 담 없는 우리 디락방이 참 좋다!

(1면에서 계속)

그런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전도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훈련하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 열려있는 낮은 울타리의 소그룹이 될 수 있다.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전도는 다른 사람을 구원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일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독려함으로써 전도하는 것이다.

이루신 일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를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신 대위임령에 더욱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그룹 시작하기

새롭게 전도돼서 소그룹에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영혼들을 기존 소그룹 일원으로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들을 새로운 소그룹으로 편성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러나 새롭게 전도된 사람들만으로 소그룹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잘 모이고 있던 그룹에서 리더십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한 구성원이 새로운 소그룹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구성원의 새로운 출발은 남아 있는 구성원들에게도 새로운 영적 도전이 되고, 전체적으로 소그룹 사역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장벽을 높이 쌓아 아무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장벽을 허무사 우리를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생명의

소그룹으로 인도해 주셨다. 따라서 우리의 소그룹이 이런 은혜를 삼으로 실천하는 것은 자명하고 마땅한 일이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그들에게 자신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것으로 전도하는 소그룹이 우후죽순으로 세워져야 한다.

또한 새로운 그룹의 역동성을 활용함으로써, 장벽을 허문 많은 소그룹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서, 공동체를 통한 회복과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

'테러 감행' 무슬림이 진짜 무슬림인가?

(2면에서 계속)

23년 동안 파키스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민간 종교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 살라피는 이것을 "개변"이라고 부르며 이슬람에서 축출하려고 한다.

"이것이 파키스탄 사회에 널리 퍼져있고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라는 은 말했다.

그러나 최근 파키스탄 이맘(이슬람 공동체 지도자) 1800명이 자살폭탄 테러를 추방하라는 파르와(종교적 포고)를 선포했다.

"이것은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징조입니다." 라는 은 말했다.

"테러리즘은 인류 전체의 적입니다." 자키는 말했다. "무슬림 지도자들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타키프의 관점에서 질문해 보자: 이슬람교는 이슬람 신앙 안에 있는가? "무슬림들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자키는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알-아즈하르는 수니 무슬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교이다. 알-아즈하르는 테러리즘을 비난하는 일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이러한 알-아즈하르를 개혁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력이 존재한다. 일부는 알-아즈하르에 대하여 타키프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부 도를 지나친 사람들도 있지만 수피는 이슬람 울타리 안에 있다고 알-아즈하르는 말한다(알-아즈하르가 볼 때). 비록 끔찍한 죄인들이기는 하지만, 이슬람교가 마찬가지다.

"타키프는 무슬림들의 피를 흘리는 악습입니다." 알-아즈하르 대학교의 이슬람학 교수인 카말 보라이카는 말했다. "타인들에게 불신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분열과 불화를 초래합니다."

무슬림은 특정한 "신앙의 기둥들"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된다고 그는 말했다. 오직 신만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공개적으로 부인할 때만 그는 비-무슬림이 된다.

선한 행위나 중대한 죄는 신앙을 구성하는 별개의 요소다. 불신앙은

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전쟁 행위(?) 테러리즘이 여기에 포함된다(?) 에는 엄한 처벌이 따른다.

"테러리스트를 불신자로 선포하는 것은 따라서 어떤 실제적인 효력도 없는 일입니다." 보라이카는 말했다. "타키프에 동조하는 것은 이슬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학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집트의 유력한 수피 단체의 하나인 알라 아불 아자임(Alaa Abul Azayim)은 이슬람교가를 불신자들로 선언하는 파르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다른 편에서는, 일부 살라피와 혁명적 이슬람주의자들은 샤리아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불신앙의 표지라는 쿠란의 해석에 근거해 무슬림 통치자들을 불신자로 선언했다.

요약하면 이렇다: 타키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보라이카는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는 알-아즈하르 감시단'의 일원이다. 이 단체는 지하디스트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온라인 활동을 9개 언어로 전개하고 있다.

"나는 이슬람교가를 '비-무슬림'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은

말했다. "그리고 알-아즈하르는 어떤가 하면, 그들도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극단주의를 지지하는 그들의 경전에 변함없이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아크울도 비판적이다. 그는 이슬람 법학이 개혁돼야 한다고 말한다. "무슬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료 무슬림들을 배교자라고 부를 수 없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자칭 '배교자들' (?) 무신론자 같은(?)은 처벌 받아야 한다는 그런 관념에도 도전해야 합니다."

자키와 마찬가지로, 아크울이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교훈 역시 이슬람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럽의 중세 암흑시대에 십자군은 만행을 일삼았다. 그들은 크리스천이었을까? 분명히 그렇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들의 폭력적 해석을 받아들이는 크리스천은 이제 거의 없다.

아크울이 볼 때, 이슬람의 암흑시대는 바로 지금이다. "이것은 이슬람과 관계없다." 이견 틀린 말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틀립니다. 그것은 매우 불공평한 말입니다."

채플린 임상목회 (14)

Quid Pro Quo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미국이나 한국이나 온통 #MeToo(나도) 열풍이 휩쓸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경,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한 여배우가 할리우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제작자 비비와 인스타인에게 당하고도 침묵하고 있던 수많은 성추행과 성폭행 피해자들을 향해 SNS 상에 소위 해쉬태그를 붙이면서 급속도로 확산된 현상입니다. 지금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피해 여성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그동안 숨방망이 처벌로 법의 망을 피해가며 추행을 계속해온 수많은 남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시작되었지만, 법조계와 정치계, 언론과 교육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고발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그 여파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 한국과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병원 채플린이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꼭 거쳐야 하는 직원 교육을 온라인 과정을 접하기 전까지는 어떤 곳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관한 훈련을 이처럼 체계 있게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뿐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대부분의 공공 기관, 학교와 종교 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영리 기관과 우수한 대기업의 신입사원 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및 법적 조치를 계몽시켜서 이에 따른 조직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그 피해를 방지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육 세부사항 중 하나가 바로 "Quid Pro Quo (QPQ)"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Something for Someth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보상을 기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QPQ란 표현은 주로 어떤 직장 상사가 하위 직원에게 자리를 유지하거나 승진, 급여 인상 등을 제안하며 그 대가로 성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어온 일종의 성폭력 범죄 용어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직 내 성추행, 성폭행 사태들을 보면 전형적인 Quid Pro Quo 학대 사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고 악행을 반복하면서 육신적, 심리적, 정신적인 깊은 상처를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한국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QPQ와 같은 성적 학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갖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가히 방산의 일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 규정에 따르면 단 한 번의 QPQ 행위만으로도 병원 당국은 그 직원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임하고 형사조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고, 또 그 사실을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주시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교회는 이 문제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계도 이제는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대응이 아닌 조금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신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실천신학 부문에 이러한 성추행과 성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가르치고, 교단이나 개 교회의 차원에서 구제적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을 준비해서 마지막 때에 주의 몸된 교회나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르게 목양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dspark@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성령충만의 증거

어느 목사님이 주일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어떤 여자 한사람이 사무실에 찾아왔다. 그리고 "목사님, 오늘 저는 목사님 설교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세요! 어떻게 체험했는데?" 하니깐 이 교인이 "성령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필요한 500불은 목사님에게 가서 달라고 하면 곧 주실 것이다. 그런 강력한 음성을 듣는 체험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 목사님이 기가 막히는 거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랬다. "그래요? 거짓 이상하군요. 내게 500달러는 말할 것도 없고 50달러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성령님께서 잘 아실 텐

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고 물었다. 지금 나를 감동하고 내 생각을 인도하시는 분이 정말 성령이냐 이것이다. 아니 그게 허깨비냐? 아니면 내 욕망이냐? 혹은 내 꿈이냐? 한번쯤 생각해 봐야한다. 내 마음에 어떤 충격이 있다. 굉장한 사건이 있어도 정말 한 번 더 물어 봐야 한다.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이다. 사도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환한 빛이 내려오면서 딱 길을 막는다.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는 순간에 사도바울이 딱 한마

디 묻는다. "주여, 낚시니까?" 묻지 않냐? 이것은 신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이다. 그러나 이런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도 성경은 그 정체감을 분명히 밝힌다. "당신 누구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사도바울이 완전히 바뀐다. 아니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의 수여자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 그 환상적으로 인해... 역사가 바뀌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나를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인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성령인가? 내게 꿈에 나타난 분이 성령인가? 정말 주님이신가? 확인해야 된다. 인간은 세 종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생리학적 인간이다. Biological being이라고 한다. 생리학적, 혹은 본능에 끌려서 강한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그 생활의 전부이다. 먹고 싶어서 먹고, 자고 싶으니까 자고, 놀아야겠으니까 돈 벌어야 되고 이게 다 잘못 생각하면 생리학적 욕구에 끌려가는 것이다. 생리적 본능에, 그 강한 욕구, 그 충족을 위해서 허우적거리며 한평생을 사는 그런 생리학적 인간이 있다. 또 하나는 철학적 인간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이성과 양심을 중

요하게 여긴다.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깊이 생각을 한다. 보시라! 여기 음식이 있다. 속에서는 "먹어라"하고 본능적인 충동을 한다. 그러나 이성은 말한다. "먹지마라. 저거 누가 주는 거냐? 독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 "아 이건 네 몸에 이롭지 않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몸무게(weight)도 생각하고 다이어트도 생각을 하고 먹는다. 더 나가서 "자 내가 이렇게 배부르게 음식을 먹어도 되냐? 굶는 사람이 많은데... 이 세상에는 배고파서 쓰러져 가는 사람도 많은데 이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될까?" 생각한다. 여기 내 음식이 있지만 옆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굶으면 이게 목에 안 넘어 가는 거다. 안 그런가? 적어도 인간이면 이 정도가 돼야 인간이지, 음식 있다고 다 먹고, 맛있다고 다 먹고, 이걸 생각 있는 사람이 할 것이 아니지 않냐? 적어도 도덕적 성향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철학적 인간이다. 세 번째는 성령 주도적 인간이다. 내게 욕망도 있고 내게 이성적, 철학적 욕구도 있지만 그 위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성령이 주도하는 본능으로 또 그 성령이 주도하는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 신앙인이다. 성령이 주도하는 대로,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데

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주도적 인간이다. 때로는 내 이성적 생각을 굶고, 내 욕망도 억제하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충만이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주로 이 용어를 많이 쓰는 단어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중생한다. 그런데 중생이라는 말은 Born from above, 내 의식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 출생, 출생이 중생이고 그다음에는 거듭 거듭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Sanctification 또는 Purification, 성화이다. 그래서 전에 좋아하던 것도 버리게 되고, 술 담배도 끊게 되고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도박도 끊게 되고 그러다.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거 하나씩 하나씩 재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주님의 일, 봉사 하는 것 이런 것이 좋아진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성화되는 과정이다. 말하자면 중생할 때는 목적이 변하고 생명력에 의해서 살고,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고 그 동기가 변한다. 그리고 그 중생한 인격이 성화하면서 가치관이 변하고 그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한다. 생활양식이 변하고 점점 그리스도화 되어간다. 이것

이 다 성령의 역사이다. 그런데 '충만'하다는 말은 소위 신학적으로 "은혜적이기보다는 사적이다"라고 표현한다.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같이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한 것이다" 그랬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화로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이고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서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말이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도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갔다. 그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옛 직업으로 고기잡으러 돌아갔다. 그러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임할 때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 하는 사람으로 나사게 된다. 이게 바로 성령충만함이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 바로 전도이다. 성령을 말하면 곧 바로 신비주의로 달려가는 것은 잘못이다. 성령론의 결론은 언제나 선교로 귀결되어야 한다. 성령 곧 전도의 열,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선교의 역사이다. revpetergang@hotmail.com

푸/른/초/장

손형식 목사
(워싱턴 필그림교회)



성경의 모든 진행과 사건들은 종말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몸의 부활과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세계로 이어져 가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역사의 마지막을 말하는 종말은 매 시대마다 가까웠다고 말해 왔지만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왜? 과거에 이런 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종말의 징조들을 열거해본다.
△이스라엘의 회복(1948년 5월 14일, 여기서부터 종말 무대가 시작됨)
△핵무기/불심판(노아홍수/물심판)
△인터넷 시대(바벨탑으로 세계가 하나됨)
△지식과 왕래가 빨라짐
△금신상의 발가락 시대
△부시 대통령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9.11테러-점점 666시대/기술적 가능, 상황적 필요)
△오바마 대통령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동성애 합법화/소돔, 고모라)

트럼프 대통령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등등! 하나하나가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다.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심판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서 확인해 본다. 우리 하나님은 협상이 가능하신 분이

아니! 소돔 고모라/50명-열명으로)
△후회하심: 노아 홍수로 진멸하신 후에
△뜻을 돌이키심: 금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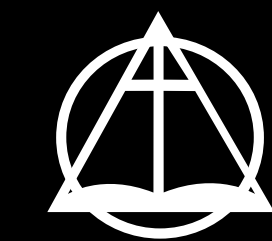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살면 세상이 산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자유의지는 끝까지 존중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검증하시기 위하여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다. 결국 인간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교만과 탐욕 때문에 선악과 검증에서 실패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는 죄, 저주, 죽음, 지옥이 찾아온 것이다. 지금도 마귀사탄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계속 시험하고, 공격한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을 파괴한다. 인간이 걸음으로 번성, 발전 하는 것 같아도 실은 마귀에 붙잡혀, 끌려, 묶여, 매어! 인격파괴, 가정파괴, 교회파괴, 나라 민족을 파괴하여 담배, 술, 마약, 도박, 섹스 중독으로, 사상과 이념으로 인간을 저주 아래로 몰아갔고, 몰아간다. 인간의 삶이란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과 결단으로 이어져 간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

는 백화점이 문을 열지 않았다. 분위기는 영적이었고, 경건함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동성합법, 마약합법, 하나님을 대적, 복음을 조롱하며,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영적으로 볼 때 마귀에게 정복당한 것이다. 40년 전과 오늘! 오늘과 40년 후! 오늘과 다음 세대를 비교해 보면 기독교 신앙의 명맥이 이어질까? 순결한 기독교가 존재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유럽은 완전히 무너졌고, 주일은 개신교로 예배드릴 곳이 없는 처지이다. 천주교도 문화로만 남은 형편이며 모슬렘에 정복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한 사람이 살아서 세상을 살리게 하신다.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불꽃을 터주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한 사람이 살면 세상이 산다. 18세기 초기는 참으로 유럽의 영적인 암흑기였다. 이 때 체코 지역의 한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완성되면 현관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림을 붙이기로 결정하고 교회 화가에게 부탁했다. (14면으로 계속)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한다”

(요한복음 6장 63절)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8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8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8.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8)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Dates: May 18(Fri)-21(Mon), 2018
- Place: Old Westbury, NY USA

3. Examination Subjects

-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OT Exegesis Text : Psalm 110:1-7
- NT Exegesis Text : Rom. 4:17-25
- Thesis Topic : Evaluate the New Perspective of Tom Wright in the view of the Reformed Theology.
- Sermon Text : Luke 16:19-31

-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JohnJhoOTEExegesisPaper.pdf)
 -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8.
-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Fee: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PC (Retake Exam fee: \$100)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8.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8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2nd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2-25, 2018).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8-21, 2018 Old Westbury, New York) through Rev. John Jho.
-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John E. Jho / Address: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U.S.A.
Cell : (7028) 296-9193, E-mail :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Sunghoon Cho (718) 986-8442 kpcny@gmail.com
-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John E. Jho (702) 296-9193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Jae Hyun Han (831) 9207043 jhanrev@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오하이오주 기독교단체, 30년된 동성애 술집 인수해 기독교 예배센터로 전환

오하이오주 톨레도(Toledo)라는 도시에 30년 동안 동성애 커뮤니티를 위해 운영됐던 Bretz 라는 술집이 작년 12월에 문을 닫으며, 그 건물이 톨레도 기도의 집(Greater Toledo House of Prayer)라고 불리는 예배센터이자 기도의 집으로 전환되었다는 감사한 소식입니다.

또한, 동성애 운동단체들과 친동성애 미디어들은 Greater Toledo House of Prayer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글이 써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혐오와 증오의 단체" "안티-동성애", 또는 "이단"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는데, 동성애 운동팀이 발표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독교단체가 동성애 커뮤니티에 수십년간 동성애 술집이었던 것을 사서 기도의 집으로 만든 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하이오 Family Policy Council의 Citizens for Community Values 회장인 Aaron Baer은 이번 구매를 칭찬하며

되지 않아 업소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결론-사회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의 사명

보통 유럽은 술집이나 클럽들이 문 닫은 교회들을 사서 술집으로 전환시키거나 무슬림들이 사서 모스크로 전환시키는데,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술집을 예배와 기도의 집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나 술집에서 기도의 집으로 바뀐 것을 모르고, 외로운 마음과 방황으로 술이나 마시러 찾아 온 사람들, 그리고 오늘밤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동성애자 만나 하룻밤 잠자리를 갖고자 찾아온 동성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나누고 기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믿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극히 반 기독교적이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혐오자, 미움의 대상, 인종차별주의" 등등의 왜곡된 이름으로 매질시키려는 동성애 운동가들이나 친동성애 사상을 추종하는 무리들과는 달리, 영적으로 속아서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믿고 있는 동성애자들은 다른 종류의 결린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치유와 진리를 통한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톨레도 기도의 집을 통하여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주시고, 앞으로 톨레도 기도의 집과 같은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T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단체)에서는 오는 4월 13일(금)과 14일(토), 영연귀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Gospel-Culture - Find your True Identity"라는 제목으로 Truth Forum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참석하여 전문교수, 강사진들을 통해 자신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주위의 친구들을 도울 수 있도록, 무장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이 행사에 참석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기도의 집 웹 사이트 가보니까, 그들의 성, 결혼, 성별,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신앙 진술에 따르면, '결혼 밖의 모든 성관계를 포함한 간음, 동성애, 양성애, 수간, 근친상간, 성전환, 포르노의 모든 음란을 반대하고 금지한다'라고 적혀있다. 이런 Anti-동성애, 혐오적이고 이단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이 동성애 술집을 산다는 것은 우리 커뮤니티에게는 모욕이 아닐까?"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로, 동성애운동가들이 기도의 집이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단체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 중에 "동성애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성경적용 하나인 퀸제임스 성경이 아닌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경적용을 따로 퀸 바이블(Queen Bible)이라고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ick Komives 시의회 의원(City Councilman)이 2월 초에 WNWO와의 인터뷰에서 확인해준 바에 의하면 기독교단체는 제 3자를 통해 아담스 스트리트(Adams Street) 재산을 구입하고 이 동성애 술집을 사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이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톨레도에 있는 LGBT 커뮤니티의 일부 사람들은 불평하기를 '왜 하필이면 기독교 단체가 예전의 동성애 클럽을 구매하는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톨레도의 시의원 Nick Komives까지도 기자 회견에서 동성애자들 편을 들어 말하기를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할 장소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거나 불쾌해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 교회는 여러 다양한 선택이 있었을 텐데 굳이 이 건물을 선택한 것이냐는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가 이 건물을 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는데, 솔직히 비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은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여겨진다"라고 인터뷰 때 얘기했었습니다.

사진: Bertz 동성애 술집 때의 모습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공산주의는 사상적으로 기독교와 반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공산화 하려는 북한 공산주의의 사상과 전략과 공산주의의 모순성을 알고 싶습니다.

-아나하임에서 yang

A: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이 한국에 약 3만명이 되는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은 남한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간첩들이 너무나 많고 진짜 빨갱이들은 남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처럼 한국은 현재 공산, 사회주의의 종북 좌경사상에 몰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국민들의 반공정신이 너무 해이합니다. 절물한대로 먼저 공산주의의 핵심을 조금 소개합니다.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은 그 원조가 소련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나왔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실현 가능성 또는 완성된 사회를 주장합니다.

위키 백과사전에 의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산업화 된 자본주의 사회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한 단계 낮은 공산주의인 사회주의 사회로 바꾸어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를 성립하려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노동자를 중심한 무산 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세력이 현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체제의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가진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 또는 투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재작년에 소위 촛불혁명을 민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하여 박근혜 정권을 축출하였는데 그것을 소위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 무신론 독재주의 악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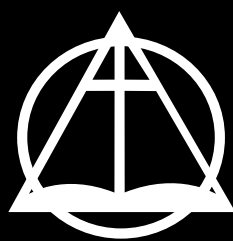
촛불혁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고 촛불혁명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 데 그것은 잘 알고 보면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쓰는 공산 사회주의 혁명 개념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 사회주의의 그 다음 과정이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주요 이념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악사상입니다. 공산주의의 원조인 레닌은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 유물론이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만물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입니다.

과거 북한의 김일성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공산화 하려는데 주한 미군이 한국에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남한의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공산화 하기 전에 젊은 대학생과 청년, 노동자들과 주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공산주의 이론과 사상을 학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단체가 소위 주사파나 전교조들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정권권의 실세가 이런 주사파나 전교조의 사상교육을 받은 자들이 정권의 실세가 되어 청와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핵무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학습에 보면 자본주의 사회는 다수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얻은 잉여자본으로 만들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패거리를 형성하기 위한 '장(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교육을 '낡은 교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의 반대가 바로 자본주의, 자유주의입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잘 알아야 할 것은 공산주의의 이념은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소련과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를 보면 결국은 일당 독재로 변질되면서 그 밑에 소수의 혁명세력들을 관료화하였고 그들은 부정축재하며 노동자 인민들은 배급이 줄고 착취당하고 자유도 제한적입니다. 북한공산주의도 보십시오. 일당 독재체제이며 노동자인 인민은 숨죽이고 공포에 놀러 사는 완전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이며 마귀에서 나온 무신론 독재주의 악사상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8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8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8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8년 5월 18(금) - 21(월)
2) 고시 장소: Old Westbury, New York, US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2)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시편 110:1-7
(2) 신약 주해 - 로마서 4:17-25
(3) 논문 제목 - 개혁주의 관점에서 톨라이트의 뉴 피스텍티브를 평가하라.
(4) 설교 원고 - 누가복음 16:19-31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② 고시 기간 중 설교실(고시)을 치를 것.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자에게 이메일 할 것.

③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④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⑤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필자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⑥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⑦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JohnJhoTExegesisPaper.pdf)
⑧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8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FCPCNY (재시할 \$100)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8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인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42회 총회기간(5월22일-25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조용철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9일-21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2)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조용철 목사(Rev. John E. Jho) / Email: d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주소: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U.S.A. / 전화: (702) 296-9193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조성훈 목사 (718) 986-8442, kfpcny@gmail.com
2) 고시부 서기: 조용철 목사 (702) 579-7576, djrho@hotmail.com
3) 고시부 회계: 한재현 목사 (831) 9207043, jhanrev@gmail.com

총회장: 유재일 목사

서기: 최중현 목사

고시부 부장: 조성훈 목사

고시부 서기: 조용철 목사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프리카의 하우스(HAUSA)



8개 국가에 거주하는 9개 하우스 종족의 통합 파일. 2300만이나 되는 하우스족은 중앙아프리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족 집단이다. 이들의 문화는 이슬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역사는 이민과 정복으로 점철돼 있고, 19세기 초 이후로 풀라니족(Fulani) 침략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여러 세기 동안 원거리 무역에 주로 종사해온 데다가 그들의 민족성 자체가 동화력이 있어서, 하우스의 문화적 경계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었다.

하우스의 언어는 빠른 속도로 북부 나이지리아의 주요 언어가 되

고 있다. 사하라 주변에 사는 다양한 민족들이 하우스어를 또한 사용하고 있다. 토루베족(Torobe)과 펠라타족(Fellata)을 비롯한 풀라니족들 일부는 하우스어뿐만 아니라, 하우스의 문화까지도 받아들였다.

2천만 이상의 하우스족은 나이지리아의 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을 "하우스의 땅(Hausaland)"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동부의 수단과 에티오피아와 함께, 대부분의 서아프리카 국가들에도 많은 하우스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서아프리카의 주요 도시에도 잘 정착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향력 있는 강한 크리스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삶의 모습

하우스족은 주로 농부나 양치기로서, 또는 무역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재배하는 작물로는 수수, 옥수수, 쌀, 양, 땅콩, 담배 같은 것들이 있다. 농부나 양치기라 하더라도, 2/3 정도는 농업이 아닌 일을 부업으로 갖고 있다.

하우스 무역상들의 특징적인 외모는 길게 늘어뜨린 가운과 수를 놓은 모자를 쓴다는 것이다. 그들이 보내는 많은 시간들은, 지방 시장에서 가족제품과 철재 자물쇠, 마구 같은 물건들을 팔러 다닌다. 시장은 하우스 사회의 전통적인 한 부분으로,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남자친구들과 친척들이 시장에서 만나 마을일을 의논하고, 웃을 잘 빼입은 처녀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그곳으로 간다.

대부분의 하우스인들은 시골농촌에서 살고 있는데, 한 농촌에는 2,000에서 12,000명 정도의 인구가 산다. 촌락의 내외에서 인구의 1/3-1/2 정도는 대가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농촌부락을 이루며 산다. 이러한 혈연을 바탕으로 한 경제단위는 가부장적 권위와 지도 아래 유지된다.

하우스의 사회구조 내에서 개인

들은 그들의 직업과 소유재산에 따라 평민 또는 수장(chief)으로 분류된다. 혼인관계에서는 가까운 친척, 특히 사촌 등이 배우자로 선택된다. 이는 부계사회로서 남성의 혈연을 따라 후손들이 이어지는 것이다. 부유한 하우스인들의 옷장에는 전통의상에 따라 수를 놓은 가운과 샌들, 가죽 슬리퍼 등이 있다.

하우스의 여자는 12-14세에 대해 결혼을 한다. 이혼율이 높긴 하지만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력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오래도록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일은 별로 없다. 혼인 상태에 따라서 여자들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일은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우스의 여자들은 남자보다 교육의 기회가 적다. 그들은 친척집에 방문하거나 축제 또는 일터에 갈 때 빼고는 외출에 제한받는 일이 흔하다. 여자들은 아이를 기르고 잡다한 가사를 하는 등의 일을 주로 맡고 있다. 또 물을 길러오고, 요리해 필요한 연료를 구해오는 일 제단위는 가부장의 권위와 지도 아래 유지된다.

록 하고 있다. 벌어들인 돈은 딸의 지참금을 저축하는 데 쓰인다.

하우스족은 매우 근면한 민족이며, 나태는 용납되지 않는다. 사실상, 그들은 몇 가지 다른 직업들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군대에 있으면서 무역과 상업하고 사회사업도 하며, 이슬람 전파에도 힘을 쏟는다. 이런 집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종교와 상업 영역을 독식하게 됐다.

신앙

서기 1500년경에 이슬람교가 북부 무역상들에 의해 하우스족에게로 들어왔다. 도시에 사는 하우스족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즉시 받아들였다.

1804년과 1808년에 "성전(holy wars)"이 일어나면서 하우스족은 주변의 강대한 이슬람 종족인 풀라니족에 정복됐다. 그때 많은 시골사람들도 강제로 또는 돈을 받는 대가로 무슬림이 됐다.

오늘날 하우스족은 완전히 무슬림 민족이다. 그들은 주변민족들에게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단히 독실한 무슬림으로서 이슬람의 의식들과 축제 모두를 준수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하우스의 문화는 이슬람과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남부 나이지리아의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하우스인들을 강렬히 박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하우스 사회에는 이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원이 있다. 그럼에도 불행한 일은 예수께 마음을 연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슬람이 하우스의 무역상들과 종교인들에 의해 서아프리카 전역에 퍼져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우스인이 무슬림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에 계속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우스족에게 현존하는 기독교 자원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교외성도 3명 중 1명 국내외서 자녀 입양

미국교회 성도 3명 중 1명은 자녀를 입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을 위탁받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미국 성도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미국 기독교여론조사 전문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가 미국 기독교 신자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입양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17%는 미국 내에서 아이를 입양했고, 15%는 해외에서 아이를 입양했다. 국내외에서 고아를 입양한 성도가 32%에 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탁 양육 방식으로 고아를 돌보는 성도 비율은 4명 중 1명(25%)뿐이었다.

교회 규모가 클수록 성도들의 위탁양육과 입양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두드러졌다. 성도 수 250명 이상인 교회의 경우 입양을 위한 기금 마련 및 부모 훈련 비율이 각각 15%, 13%였고, 250명 미만 규모의 교회에선 각각 5%, 2%에 그쳤다.

스캇 맥코넬 라이프웨이리서치 상임 디렉터는 "입양과 위탁 양육은 성도들에게 거부감 없고 자연스럽게 일"이라며 "성도들이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한 성경 속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성도들 사이에 입양에 대한 정보공유도 활발하다"고 말했다.

입양에 대한 미국교회 및 성도들의 높은 관심은 감소세가 확인한 미국 전체의 입양 통계치와 대비된다. 미국 전국입양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내 입양 수는 2007년 13만3737명에서 2014년 11만373명으로 17.5% 감소했고, 해외 입양 역시 2004년 2만2989명에서 2016년 5370명으로 76.7%나 줄었다. 이번 조사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18세 이상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이뤄졌으며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3.1%다.

미 의회에서 그레이엄 목사 추도식

고(故)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추도식이 28일 워싱턴DC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세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마치 국장(國葬)을 방불케 했다. 추도식이 열린 의사당 바깥에는 그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수천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목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기도의 힘과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온 세상에 일깨웠다"며 "하나님은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하기 위해 그레이엄 목사 같은 분들을 보내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그레이엄 목사는 '네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매일 실천하며 살았다"고 고인을 기렸다. 맥코넬 대표는 "그레이엄 목사는 '내가 하는 일의 비밀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그가 '미국의(대표적인) 목회자'라 불리는 까닭"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 추도식이 열린 건 에이브러햄 링컨 등 전직 대통령 11명을 비롯해 30여명에 불과하다. 민간인의 추도식은 그레이엄 목사가 네 번째이자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추도식은 오전 11시 그레이엄 목사의 관이 의사당 로텐더홀에 도착하면서 시작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들도 대

부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펜스 부통령의 부인 캐런 여사도 모습을 보였다. 시신은 1일까지 의사당에 안치돼 일반인의 조문을 받고 2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의 빌리 그레이엄 도서관으로 옮겨진 뒤 장례식이 치러졌다.

팀 켈러가 말하는 '포스트모더니즘시대, 7가지 설교원칙'

뉴욕에서 '도시복음 운동'을 펼치고 있는 팀 켈러 목사가 4일 방한, 북 콘서트에 이어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양재동 헬스문화관에서 릴레이 강연을 펼쳤다.



팀 켈러 목사는 강연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것인지'에서 "그동안의 전도 사역은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내세를 믿고, 도덕적 기준이 있으며, 죄짓는 것과 부끄러움이 뭔지 아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죄책감을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사람들은 도덕적 전리가 없다고 믿고, 스스로 도덕적 기준과 선악을 규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에 하나님 필요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졌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렇게 현대 기독교 사역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에서 4세대에 걸쳐 일어난 변화가 한국에선 한 세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음악과 영화, 광고, SNS를 통해 한국의 젊은이들은 매일 포스트모더니즘의 폭격을 당하고 있다.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젊은 세대는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교하고 다가설 때 기억해야 할 7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믿지 않는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 한다. '언약' '칭의'와 같이 전문적인 신학 용어를 쓸 때는 항상 무슨 뜻인지 설명해야 한다. 내부자들만 아는 단어로 그들을 이방인이나 아웃사이드어로 만들지 마라. 둘째, 성경과 더불어 안 믿는 이들이 존경하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도 똑같이 말했다고 해야 그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셋째, 그들이 의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유다서에서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많은 설교자가 의심하는 이들에게 지버림지 않는다.

넷째, 그들이 믿고 있는 것에 근거해 그들이 잘못 믿고 있다고 말해줘야 한다. 당신이 믿고, 나도 믿고, 성경도 동의한다. 그런데 당신이 그걸 믿는다면, 왜 이걸 믿지 못하나.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설득할 수 있다.

다섯째, 믿지 않는 이들의 갈망에 맞춰 복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선 안 된다.

여섯째,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사람들의 의지에 어필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는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라.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여러분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인디애나주, 200년 만에 '일요일 술 판매' 허용

인디애나 주가 오랜 전통을 깨고 일요일 술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릭 홀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8시 사이 주류 전문매장과

편의점, 약국, 대형마트 등에서 맥주나 와인 등 모든 종류의 주류 판매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인디애나 지역 신문 사우스밴드 트리뷴은 홀컴 주지사가 법안 서명 후 "건배"라고 말하고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2주 전 인디애나 주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홀컴 주지사는 "일요일에 술을 사기 위해 주 경계를 넘어야 하는 일이 더는 필요 없어졌다"며 "오늘은 전적으로 소비자 승리의 날"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즉각 발효됐으며, 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로써 기독교 가치 기준에 의해 일요일 술 판매를 금지해온 인디애나 주의 오랜 전통은 과거 역사로만 남게 됐다.

인디애나는 미국의 19번째 주로 승격된 1816년부터 일요일 주류 판매를 법으로 금지해왔으며, 18년여 차례 폐지 시도가 있었으나 논란 끝에 무산됐다. 1800년대 초반 여행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됐었지만 1850년 다시 제재가 강화됐다.

미국에서 1919년 금주법이 제정됐다가 1933년 전면 폐지됐으나 인디애나주는 일요일 주류 판매 금지 원칙을 고수해왔다.

한편 시카고 선타임스는 미국 증류주협회 자료를 인용, 인디애나 주는 일요일 주류 판매를 허용한 41번째 주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주류상들이 이 입법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최소 15만 달러, 의원들에 대한 정치 기부금으로 75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미시간주 '영어가 유일한 공식언어' 지정 입법 논란

미시간주가 영어를 유일한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입법을 추진, 찬반논란이 일었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 주 하원은 영어를 주정부 공식 언어로 명문화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2표 대 반대 46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으로 이관됐으며, 리크 스나이더 주지사(공화) 서명까지 별 무리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주정부 공식 문서와 행정 절차 등에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기관이나 하급 지자체가 다른 언어로 된 문서나 양식을 '추가로' 인쇄·배포하는 것을 제재하지는 않으며, 연방법과 배치되거나 공공 안전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기존 관행을 성문화하고, 미시간 주의 사실상 공식 언어인 영어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며 "영어가 미시간 주 공용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들에게 영어 습득을 격려함으로써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신규 이민자 또는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들을 소외시키는 분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네사 게라(민주) 의원은 "상징적인 선포일 뿐 실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런 법안을 작성하고 심의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형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톰 배럿(공화) 의원은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매사추세츠주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2개 주가 앞서 유사 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매사추세츠주는 1975년, 캘리포니아주는 1986년, 입법을 통해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했다. 배럿 의원은 "미시간주는 다양성 확립을 중시한다. 그러나 주민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경험, 공통성이 없다면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주들이 차츰 늘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 영어가 공식 언어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미국 연방 의회에 영어를 공식 언어로 선포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상정됐으나, 반(反)이민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소총 들고 '총탄 왕관' 에 웨딩드레스

총탄으로 장식한 왕관을 쓴 인파 약 600명이 교회 건물에 가득 찼다. 신부와 신랑은 각각 웨딩드레스와 검정 슈트 차림으로 AR-15 소총을 들었다. '성포도주'를 마시고 짝마다 인사를 나누는 그들은 그렇게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AP통신은 통일교 문선명 전 총재의 막내아들 문형진이 세운 미 펜실베이니아주 뉴파운트랜드 '세계평화통일인식처'에서 28일 열린 합동결혼식 풍경을 보도했다. 드레스를 입은 채 소총을 들고 총탄으로 장식된 왕관을 쓴 기괴한 모습에 지역주민들 등이 건물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인근 학교는 당일 수업을 취소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저마다 장전되지 않은 AR-15 소총을 준비해왔다. 성경 중 시편과 욥기, 요한계시록 등에 언급된 '철장(rod of iron·쇠막대기)'이라는 이유였다. 이 소총은 지난달 14일 벌어진 플로리다주 총기난사 사건에 사용된 총기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문씨는 과거 통일교 지도자로 사실상 낙점됐지만 2012년 아버지 문선명 총재 사망 뒤 3년 뒤인 2015년 교권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같은 해 세계평화통일인식처를 세우고 통일교 2대 총재임을 주장하고 있다. 문씨는 이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주막' 타이슨 집, 교회가 된 사연

'해주막'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복서 마이크 타이슨(52). 그의 집이 예배당이 된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타이슨이 전성기 시절 살았던 집이 교회로 변신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강자들을 뺏겨처럼 쓰러뜨리며 데뷔 후 1년 만인 1986년 헤비급 챔피언으로 등극한 타이슨은 89년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2300여㎡(약 696평) 규모의 집을 30만 달러에 구입했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대문을 설치한 뒤 집 안에서 호랑이 4마리를 키웠다. 이 집은 오하이오의 명소가 됐다.

10년 뒤인 99년 타이슨은 이 집을 폴 모니아라는 사업가에게 130만 달러에 팔았다. 하지만 2007년 모니아가 불법자금세탁죄로 13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집은 공매를 통해 론 헤멜가른이라는 인물에게 넘어갔다. 이후 8년간 아무도 살지 않던 이 집은 2015년 리빙웰드생추어리교회(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 현재 교회 성도들은 힘을 모아 예배당으로 용도를 바꾸고 있다. 넓은 크기에 천장도 높아 예배당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오는 12월쯤 문을 열 예정이다.

교회가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는 데는 5만 달러밖에 들지 않았다. 기존 소유주가 세금 탕감을 위해 불필요한 자산을 이 집을 처분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세금만 내면 됐다. 리빙웰드생추어리교회 니콜라스 디자카모 목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감격해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46. 장기형(1907-1988)

장기형은 1907년 12월 6일에 간도 용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1929년 북간도의 은진중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후 일본에서 공부했다. 나성에 거주하던 일본인 오하쉬의 소개로 1931년 7월에 대요 마루 선편으로 상항에 도착한 그는 국민회 백일규와 오를랜드 한인교회 임정구 목사 그리고 은진중학교 친구 송창근 등의 추천서로 1931년에 버클리 침례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어 강습이 매 예배 5일에 있었다. 이듬해부터 국민회 지방회가 국어 교육을 일층 확장한 가운데 주관 키로 하고 교장에 임정구 목사의 부인 임애성이 선임된 가운데 장기형이 교사로 선정되어 국어를 가르쳤다.

고 한다. 이후 그는 상항 한인교회에서 '믿음,' '신앙애,' '사랑' 등의 주제로 설교를 이어갔다.

오를랜드 한인교회 담임목사

1936년에 버클리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사를 취득한 장기형은 그해 듀크대학교에 입학하여 3년간 공부하고 문학사를 받



장기형 목사

감사절은 오를랜드뿐만 아니라 버클리에서 재류하는 동포들이 모인 가운데 11월 21일 오후 8시에 있었다. 장기형의 사회 아래에 국어 학교 생도의 감사일 찬미와 임케틀린과 노성애의 피아노 독주, 김자혜와 조성학, 안영호, 김은혜, 이인성 등 네 사람의 감사담이 있고 난 뒤 동 밤 9시 반에 마쳤다.

1940년 성탄 축하식은 12월 22일 하오 8시에 있었다. 장기형의 사회로 찬송, 장기형의 기도, 노성애의 피아노 독주, 안수경과 안수내 그리고 노성식의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야기' 연설, 국어학교 학생의 찬송가 합창, 노성애의 성경낭독, 황사선 목사의 기도, 노성애의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 동양과 구주 전장에 있는 불쌍한 민중을 위한 3분간의 묵상, 학생 일동의 찬송가 합창 및 백매불의 영문 성경낭독 후 장기형이 설교하였고, 이어서 임케틀린의 피아노 연주, 찬송가, 그리고 일동의 기도문 낭독이 있었다. 폐식할 때에 산타클

나성 한인감리교회를 섬기던 이진목 목사가 사임하자 장기형은 1941년 7월 나성 한인감리교회로 파송된다. 이매리의 지도로 몇몇 교우들이 중국교회 등 동양계 선교를 추진하였는데 심방과 가르침 그리고 소녀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감리사 어니스트 라이온스 박사는 이매리의 신앙적이고 헌신적인 봉사는 모두에게 감사를 받을 만하다고 연회에 보고했다. 태평양 전쟁 이후 나성의 29가에 있던 일본인 감리교회 예배당을 예배처로 사용할 수 있어서 예배처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부목사로 사역하던 이경선 목사가 1944년 사임함으로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되어 본 교회에 출석하던 피도수(빅톨 피터스) 선교사가 부목사로 추대되어 한국인 부인 한흥복과 함께 약 2년간 사역하였다. 이들의 노고로 영어가 활발했고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할 수 있었다.

장기형의 목회 기간 4번의 결혼식과 2번의 장례식이 있었다. 김낙과 윤캐리, 김인과 니위 니프렛, 임디키와 손매리, 안창호 선생

정도로 언어에 능통했고, 태평양 전쟁 중 전쟁수용소에서 FBI의 번역 일을 감당했다.

1947년까지 장기형은 6년간 나성 한인감리교회를 섬겼다. 첫해인 1941년에 등록교인 수 140명에 100여 명이 출석했고 주일학교 학생은 58명이었는데 그가 사임하던 1947년에는 등록 교인 125명에 약 26명이 출석했고 주일학교 학생 수는 31명으로 감소하였다.

독립운동과 동포구제

장기형의 독립에 대한 희망은 1932년 상항 삼일절 기념식에서 한 연설에서 뚜렷하다. 이 날 그는 "대제 나라는 국토와 국권과 국민이 있는 것을 가리켜 국가라 합니다. 우리는 국토도 없고 국권도 없고 오직 남아 있는 것은 국민인데 왜놈들이 이것까지 빼앗으려고 우리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교육을 실행합니다. 우리 국민이 정신만 잃지 않으면 독립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역설했다.

1934년 1월 오를랜드 지방회 주최로 개최한 대한국민회 제25주년 기념식에서 그는 "우리 민족은 반드시 민족적 철학이 있어서 민족적 자아의 의식과 민족적 중심사상과 민족적 정신 통일을 하여야겠다. 우리는 나라도 크지 않고 수효도 많지 못하지만 민족적 통일이 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민족적 철학이 없는 까닭이라"고 독립운동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1940년부터 1942년까지 광복군 후원금을 여러 차례 헌납할 정도로 독립운동을 실천했다.

장기형의 첫 동포구제는 1933년 8월 상항과 오를랜드에 기부한 구제금에서 볼 수 있다. 이후 그의 동포구제는 조직적이었다. 나성한인감리교회에서 시무할 때 그가 맛단사스 구제금을 회사했고, 나성한인감리교회가 현금한 1944년 성탄절 현금 100불을 중국 거주 한국인 모자를 위해 특별선교금으로 보냈으며, 1945년 내지 동포구제 사업을 위한 한인구제회를 조직할 때 발기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나성 한인감리교회를 사임한 후 장기형은 듀크 대학교와 남가주대학교에서 신학과 종교를 공부한다. 1947년에 그는 미국 동부 버지니아 주의 페름 주니어 대학의 교수로 부임하였고, 이곳에서 은퇴하기까지 종교와 철학을 가르쳤다.

장기형 교수는 1988년 3월 15일에 버지니아 주 락이 마운트에서 향년 81세로 소천했다.

damiensohn@gmail.com

버클리침례신학교 재학중 오를랜드교회 지방 전도사로 임명받아 1940년 10월부터 담임목회, 1941년 7월 나성한인감리교회 파송 독립운동, 구제활동... 1947년 버지니아 페름 주니어 대학교수로

오를랜드 한인교회 지방 전도사

버클리 침례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장기형은 1932년 9월 개최한 미국 남감리교회 연회에서 임정구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오를랜드교회의 지방 전도사로 임명받는다. 그해 성탄절 행사 제 2부에서 장기형은 축사를 담당했고, 1934년 성탄절 행사 제 1부에서 성경봉독 순서를 맡았고, 제 2부 순서 중 4중창과 3중창에 각각 참여했다. 1935년 10월 6일 주일에 그가 '성경발전의 역사'라는 주제로 설교하여 일반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고, 같은 달 청년회에서 '종교생활의 필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1936년 5월 장기형은 버클리 침례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는데 가주대학 농과를 졸업한 김재훈과 함께 졸업 축하 특별예배의 주인공이 된다. 이날 그와 김재훈이 본 교회 엠틀 청년회에서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자신들이 겪은 학창 생활에 대한 경험담을 소개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였다.

장기형은 국어학교에도 관여했다. 1935년 9월 장기형이 김재현과 박형 등 가주 대학생들과 함께 주선하여 오를랜드 예배당에서 국

상항 한인교회

장기형은 상항 한인교회와 본교회 청년회에서 가끔 강연과 설교를 담당했다. 1935년 3월 상항교회 엠틀청년회가 조직될 때 그는 "독단적이고 미신적인 종교를 떠나 진정한 종교의 의미에서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시운에 공하여 완성한 인격을 지으며 능률 있는 단결을 이루어서 우리 민족 장래급 우리 국가와 및 세계에 공헌되는 참 엠틀 청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상적이고 기운찬 찬사를 보냈다.

그달 31일 주일 오전 예배에 그가 '예수교의 요소'라는 주제로 설교하였는데 '완전무결하신 예수의 인격을 통하여 신관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인생관으로 사람이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과 사회관으로 이상적 천국이 건설될 것을 역사적 철학적 및 신학적 설명이 있어 많은 각오와 감동'을 주었다



빅톨 피터스 선교사

은 후 상항으로 돌아왔다. 이진목 목사가 나성한인감리교회로 파송되어 오를랜드교회를 떠난 후인 1940년 10월부터 그가 오를랜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해

로스나와서 많은 선물을 나누어 준 후에 다과회가 있었는데 밤 10시 30분이 되어서야 산회했다. 장기형은 1941년 7월까지 약 9개월간 사역했다. 그가 부임하던 1940년 교적 교인은 70명이었으나 48명 정도가 출석했고, 주일학교 학생은 20명이었고 엠틀 청년회 회원이 20명이었는데 그가 사임하던 1941년에는 등록 교인이 35명이었고, 엠틀 청년회는 11명으로 교회 규모가 감소하였다.

나성 한인감리교회



장기형 교수(1971년)

의 차남 안필선과 김혜성의 결혼식을 주례했는데 장기형도 1942년 6월에 이리라고 결혼하였다. 미국의 한인 다이빙 선수 이새미의 아버지 이순기 장례식에 참가하여 기도순서를 담당했고, 초기 하와이 개척자였던 한재명 선생 장례식을 주례했다.

장기형은 1940년대 초 남가주 대학에서 일어와 한국어를 강의할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Ph.D. in Leadership

사역 리더십 박사학위 과정

MBA.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Global Leadership 글로벌 리더십 / Global Business 글로벌 비즈니스 Asset/ Investment Management, 투자, 부동산투자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Doctor of Leadership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Organizational/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서류심사, 이수 에세이, 일반상식, 면접

Ph.D. in Leadership

이수학점: 60 Credit Hours

Organizational /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 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서류심사, 이수 에세이, 일반상식, 영어시험, 면접

Certificate Programs

1년 과정

- 1. Ministry Leadership- 전도사, 신학생, 권사, 장로, 부목사 등. 2. Pastoral Leadership- 현, 담임목사 위 과정은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과 Midwest University 에서 수료증 수여함 목회자 리더십 과정은 최고의 교수진을 통해 각지역별 특강과 프로젝트에 참여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자간 네트워크, 사역협력과 친선 및 미래사역 개발, 선교협력을 하게되는 과정입니다. *목회 리더십에 대한 강의와 연구, 모델 사역현장 답사,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한 폭넓은 사역에 도전.

학위 취득방법 & 인증기관

학위,학점 취득방법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2) 직장, 사역을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강, 온라인으로 학점취득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M.Div 졸업자는 미국 재단법인 IEA 로 부터 목사안수 가능 Midwest University 는 미 국무부가 지정한 J-1, J-2 Visa Sponsor

인증기관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증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홈페이지 www.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리더십 코멘터리 (60)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과 결별을 선언하라

어떤 미래를 살고 싶은가?

비전이란 바람직한 미래를 표현한 것으로 미래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를 나타낸 기묘한 희망이다. 더 나아가 비전은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자아상이며, 미래를 향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할과 방향을 구체화시킨 것을 말한다. 그래서 리더에게 비전은 목표를 제시하고 인생길을 안내하는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물거품이 되고 마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독특한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보통사람 같으면 은퇴해서 손자나 돌볼 나이인 80세에 위대한 인생의 과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 그가 가진 가슴 벅찬 비전은 40년 간 고난의 생활을 이끌어준 강력한 에너지가 되었다. 심지어 그의 비전은 자신의 약점마저도 극복하게 만들었는데, 그의 놀라운 비전의 힘으로, 그는 120세가 되도록 시력을 유지해 사물을 볼 수 있었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모세(Moses)이다. 한 사람의 완벽하고 자신감이 충만한 비전이 쇠퇴해가는 육신에게 새 힘을 부여해서 마침내 인류사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한 것이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창조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대충 살 수 없다. 사람의 크기는 비전의 크기에 달려있다. 한 사람이 남기는 영향력은 그가 어떤 비전을 품으며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일련의 궤적이다.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 안에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는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지명하여 부르신 창조주가 당신의 인생을 멋지게 들어 사용하려고 한다. 리더여, 당신은 어떤 미래를 살고 싶은가? 에너지를 집중하고 강력한 비전을 품으라. 왜냐하면 세상에 전해줄

하늘의 보물이 바로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비전이 현실의 옷 입으려면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처럼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리더가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두려움을 완전히 제압할 만큼 보람 있는 내일과 가치 있는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마음속의 비전이 현실의 옷을 입으려면 인내와 눈물의 고개를 넘어야 한다.

비전이 현실의 옷 입으려면 인내와 눈물의 고개 넘어야 기회의 땅 미국... 죽을 각오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있어 미래 준비하는 리더 특징-활력, 동기부여, 결단력, 실행능력

어려운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비전은 반드시 현실 속에서 탄생한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마음에 품은 비전은 쉽게 잊혀 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비전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해간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인간 관계 속에서 강인한 성품을 갖고 비전을 이루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시대를 앞서가는 전문지식을 통해 비전이 이루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라. 믿음 안에서 비전을 품고, 열정과 에너지를 갖춘 리더가 되라. 목적이 분명한 비전이라면 열정과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이루지 못할 채 생을 마감한다. 그 이유는 소원은 했지만 정작 비전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완벽 주의적 성격의 사람들은 "완벽히 준비된 후에 시작하고 그 때 행동 하겠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를 충실히 살고, 지금 시작하여 계속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완벽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실행이 궁극적인 해답이다.

리더는 매일 성실히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되는데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 막연한 소원을 비전으로 착각하며 살기도 한다. 그러나 진짜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추진력을 준다. 진짜 비전을 품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세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유부단과 결별하라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생각과 내일에 대한 비전은 성장하지 않는다. 항상 해오던 일만 한다면 항상 언덕 끝과 만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낯설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만 내일과 미래를 위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낯선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다.

흔히 무언가 아무렇게 일을 하고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을 가리켜 '뚝 부러진다'고 말한다. 또 다른 말로는 '결단력이 있다'고도 한다. 인생길을 걸어감에는 신중함과 더불어 결단력이 있어야 할 때가 많다. 왜냐하면 신중함은 품

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우유부단과 결별하라. 삶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나에게 우유부단함이 있었다면, 그것을 과감한 결단력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기회의 땅에서 꿈과 비전을 이루라

누가 그랬던가?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하지만 이 말 앞에는 이런 전제가 붙어야만 한다. 미국은 '죽을 각오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기회의 땅이라고. 미국은 3억이 넘는 인구 규모에 다인종, 다문화, 다언어를 가진 나라로 세계의 모든 시장을 합쳐 놓은 것과 같은 거대한 땅덩어리이다. 그만큼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하고 기업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서 성공의 기회를 잡기가 결코 쉽지 않다. 다가오는 미래에 비전을 이루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 특징은 Energy(활력)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고 에너지가 넘

치게 살피 혹시 모를 실수를 최소화시키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중하다는 말과 비슷해 보이지만, 신중함이 너무 지나치거나 잘못되면 우유부단으로 변질되고 만다. 우유부단하면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되어 혼란과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무언가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우물쭈물하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해서 머뭇거리면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는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우유부단해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 또한 신중하면서도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결단력이 부족해서 때와 시기를 놓치면 자신과 타인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인생의 중요한 원칙을 깨닫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무슨 일에서든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켜 생활하라. 그렇지 않으면 덜 중요한 것이 차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회색을 감수하더라도 결단력 있게 처

친다. 활동과 변화를 좋아하며 활력과 에너지로 충만하다. 두 번째 특징은 Energize(동기부여)이다. 만약 산을 옮겨야 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할 만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동기부여 능력이 강력한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라고 말한다.

세 번째 특징은 Edge(결단력)이다. '예와 아니오'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날카로운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특징은 Execute(실행능력)이다.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은 편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모순된 말이다. 인생길에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악화되는 일들이 더 많다. 문제는 즉각 해결해야 한다.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가끔적이면 즉시 해결하고 처리하는 지혜로운 리더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열정을 품고 기회의 땅으로 나아가 꿈과 비전을 이루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수)

결혼 잔치

연초에 있었던 아들 결혼식 전에 주위 분들에게 "준비하느라 바빠 시겠어요"라는 인사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준비할 일은 거의 없었다. 문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혼식을 집안일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아들, 며느리는 본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식 장소, 음식 등 모든 일을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했기 때문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나와 연관된 손님 초대 리스트를 작성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아들에게 주는 것이었다. 간단한 일 같았지만 아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이 손님초대였다.

원래 큰일에는 기본 일이라 해도 스트레스가 따르는 법이다. 그런데 적은 규모의 결혼식이니라 "엄마 손님이 딱 삼십명"이라는 아들의 말에 누구를 초청해야 할지 스트레스를 받았다. 한국에서 올 언니, 형부들, 다른 주에 사는 조카들까지 합하면 우리 가족만 열 명이 되어버려니 남는 자리는 스무개 밖에 되지 않았다. 다행히 교회는 큰 교회에 나가고 있으니 교회 분들은 아무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에서도 아무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도 꼭 오셔야 할분들 이름을 적다보니 쉽게 이십 명이 넘어 버렸다. 자녀들을 결혼시켜본 경험이 있는 어떤 친구는 고맙게도 자리가 부족하면 자기는 초청 안해도 된다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본인을 초청 안해서 너무 서운해서 우셨다고 전화를 하셨다. 무척 당황스러워서 구차한 변명 같은 설명을 길게 해야 했다. 감사하게도 서운한 마음을 접으셨지만 결혼식 초대 못 받은 것 때문에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사이가 나빠져서 힘들어 하는 옛날 교인이 생각났다.

건강 때문에 갑자기 못 오시게 된 분도 있었고 갑자기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겠다고 하는 분도 있어서 겨우 겨우 아들이 준 서른 자리를 맞추었다. 남편이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만나 35년 넘게 주님 안에 많은 사랑을 받은 예들랜타에 사는 장로님 부부가 계시다. 비행기 타고 오시는 것이 최선도 하고 부담을 드릴까봐 초청을 안했었는데 권사님이 결혼식을 앞두고 전화를 하셔서 혼자라도 꼭 오시고 싶다고 하셨다. 마침 한 자리를 드릴 수 있었다. LA 길이 낯선 권사님은 이곳에 사는 동생부부와 함께 결혼식에 오셨다. 결혼예배 마치고 피로연이 따로 마련된 것으로 아시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려고 동생부부와 같이 왔다고 하셨다. 그런데 결혼예배 후 바로 그 자리에서 피로연이 있도록 계획되어서 동생부부에게 드릴 빈자리가 없었다.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야 할지 몰라서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동생부부는 결혼식 마칠 때까지 차에 가서 기다리셨고 권사님은 예식만 마치고 뱅긔는 참석을 안하시고 가셨다.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른다.

결혼식 동안 자리가 없어서 차에 앉아 계신 두 분 때문에 마음을 쓰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결혼잔치 손님초대가 생각났다. 결혼 잔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겠다고 RSVP를 해놓고 막상 결혼식 날 정성껏 준비한 잔치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참석을 안한다면 초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황당한 상황일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일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잔치를 베푸는 사람으로부터 앉을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일 것이다.

왕 되신 하나님의 잔치초청을 거부한 이스라엘 덕분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같은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초청 받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할 일이다. 그렇지만 주님이 부르신 삶에 합당한 예배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밖으로 쫓겨나가 어둠 속에서도 울 것이라고 하셨다. 새로운 결혼잔치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순종과 성실함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의로 덧입은 예배를 갖추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마치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 당황하듯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 받은 의의 옷을 입지 못해서 마지막 천국잔치 때 발을 동동 구르며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새로운 주님의 초청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것이다.

lpyun@apu.edu

피종진 목사 초청 3월 국·내외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 ▶ CBS 위성TV 방송 TV 부흥강단 - 매주 주일 오후 5:30 인터넷 : www.cbs.co.kr
- ▶ GoodTV 방송 생명의 샘터 - 본방 : 매주 수요일 오전 11:30, 재방 : 매주 목요일 오전 1:00 인터넷 : www.c3tv.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 : 010-5255-7777, (02)3411-9191, FAX : (02)401-7770
E-mail : Godbless3377@gmail.com

제211차 해외성회(211st Overseas Assembly)

- | | |
|--------------|---|
| 2(금) 오전 | 미국(U.S.A) 남가주 목사회 세미나
장소: LA 로렉스호텔 ☎(213)215-6021 |
| 3(토) 오후 | 미국(U.S.A) 남가주 한인 & 히스패닉 영적각성선교대회
장소: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213)749-4500 |
| 4(주) 오후 | 미국(U.S.A) 남가주 한인 3.1절 기념연합성회
장소: LA 미주평안교회(임송진 목사) ☎(213)381-2202 |
| 8(목) | 미국(U.S.A) 아틀란타 아가페선교교회(강진구 목사) ☎(678)642-7526 |
| 8(목)~11(주) | 미국(U.S.A) 아틀란타 예수사랑선교교회(문길원 목사) ☎(770)403-6898 |
| 11(주) 오전 | 미국(U.S.A) 아틀란타 영락교회(전재창 목사) ☎(404)421-0556 |
| 12(월)~13(화) | 미국(U.S.A) U.K.P.C 동남부노회 연합사명자부흥회(대회장 박성은 목사) ☎(404)916-6764 |
| 13(화) 오전 | 미국(U.S.A) 아틀란타 화요연합기도성회
주최: 크리스찬타임즈 ☎(404)625-1212 |
| 19(월) 오전 | 서울목회자카페(대표회장 김재용 목사) ☎ 010-5257-0374 |
| 19(월)~21(수) | 군산 에스겔기도원(원장 김향선 목사) ☎ 010-8924-4927 |
| 22(목) 저녁 | 성남 영광교회(전옥란 목사) ☎ 010-2445-1691 |
| 24(토) 오전 | 광명 예수생명교회(주종순 목사) ☎ 010-5257-0374 |
| 26(월) 오전 | 여의도순복음양평기도원(원장 이태근 목사) ☎ (031)772-9113 |
| 26(월)~28(수) | 대전 주님의교회(이금숙 목사) ☎ 010-7511-7547 |
| 30(금)~4.1(주) | 서울 사도교회(교회준 목사) ☎ 010-8633-0190 |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증후군(症候群)

현대인의 가장 큰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적인 증후군이 아닐까 한다. 뚜렷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려운 증상이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 따라 다르고 정황마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증후군의 종류도 참 많다. 피터팬 증후군은 성인이 되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상과 순수함에 사로잡혀 어린아이로 계속 남고 싶어 하는 증후군이다. 텅 커벨 증후군은 마음이 여러 누군

가에게 의지하고 따라다니고 싶어 하는 것이고, 스톱홀름 증후군은 자신을 인질로 잡은 인질범에게 동화되어 연민과 동정을 느끼는 믿기 어려운 병이다.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생소한 것도 있다.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어 하는 합리화로 슬픈 기억은 배제하고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고 싶어 하는 어리석음이며, 파랑새 증후군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상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심리상태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근자에 들어서는 명절 증후군이 전면에 등장하기도 한다. 명절을 쇠기 위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겪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자살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성피로 증후군, 계명 증후군, 대인기피 증후군 등등 무엇에든지 가져다 붙이기만 하면 심각하게 회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증후군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

나는 이런 심리적 혹은 육구변화는 매번 경험해도 적응되지 않는 불편한 것들로 호르몬이라는 몸속의 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원인인자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증후군이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인간을 갱아먹어 간다.

이와 같은 증후군 혹은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면 면역력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은 세균뿐 아니라 드러나는 상처나 망가진 부분을 재생하는 회복력도 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면 건강한 나날을 사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병자가 되어 골골거리게 된다.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면역력과 재생능력을 잃어버린 탓이다.

속담에 밥을 벌여다 죽을 썬서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받은 복을 차버리고 고생을 자초하는 경향이 아주 많다. 저 잘난 멋에 산다는 교만 때문이다. 들춰보면 제 몸을 공격하는 바이러스 하

나도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는 흰소리가 가져다주는 결과다. 사람에게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 딱 어울린다. 이를 성경에선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한다. 제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심고 물을 주는 이상을 하지 못한다. 사람의 한계 즉 임계점을 아는 것은 그래서 지혜가 아닐 수 없다.

세상은 손자병법을 많이 활용한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들먹이고 변명이나 핑계를 찾을 때도 인용한다. 그 중에 '지피지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말을 가장 널리 알려지고 빈번하게 사용이 된다. 그러나 지피지기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그 의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마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말이다.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알려 하지만 알 수 없는 것이 지피지기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입에 거품을 내뿜는다. 바벨탑을 쌓는 것은 오히려 순진한 만행일 정도다.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여기면 없는 것이라는 망언이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자기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한 마디에 좌지우지된다는 말인가? 참으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오늘 증후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 또는 착각 증후군일 것이다. 오해도 이만한 오해가 없고 착각도 이만한 착각이 없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은 사람에게만 빗대어지는 정답일 수는 있어도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진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회자되고 있는 증후군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사람의 어리석음이나 착각 증후군을 더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hanmac@cmi153.org

약한 자 위해 기도하라...2018세계기도일 예배

미주한인교회여성연 주최, 예배문 작성국 수리남

2018년 세계기도일 예배가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남가주지역 회장 최순자 사모) 주최로 3월 오전 10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1:31)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예배는 최미란 사모 사회로 열렸다. 이날 예배는 벨리연합감리교회 '하늘 두드림' 난타팀의 모듬북 연주로 시작, 최순자 사모가 환영 및 세계기도일 소개했으며 올해 기도문 작성국인 수리남을 영상으로 소개했다.

이어 △인사와 나눔(인도 최미란 사모) △부름과 응답 △고백과 기원 △용서와 화해 △말씀 나눔과 선포 △말씀선포 △수리남을 위한 중보기도(인도 유희진 부회장) △세계를 위한 합심기도(인도 석승연 권사) △약속과 파송(인도 이수자 목사, 안선진 목사)으로 이어졌다.

이날 말씀을 선포한 김지훈 목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이 있다. 중요한 기준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혼탁한 세상에 살기에 진화론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진화론은 적자생존을 가르친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 강자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진화론이 주는 시각이라면 강한 동물이



세계기도일 예배를 마치고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 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약한 동물 지배하듯 한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다"라며 "수리남은 1600년대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300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나눠주고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소외되고 억압받는 수리남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생각이 어머니를 닮듯 미주한

인교회여성연합회가 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수리남을 위해 아파하고 기도하여 창조 목적에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를 모았다"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수리남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고 여김 받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엄규서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3.1절 구국연합결기대회'가 1일 오후 1시 애틀랜타 맥다니엘 파크에서 개최됐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애틀랜타서 3.1절 구국연합결기대회

미동남부구국동지연합회(회장 김종권 목사)는 제 99회 삼일절을 맞아, '3.1절 구국연합결기대회'를 지난 1일 오후 1시 돌루스 소재 맥다니엘 파크에서 개최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진행된 행사에는 300여 교계 및 한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이날 결기대회는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3.1절 기념식 및 결기대회로, 삼일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한편, 한국의 종북 주사파와 북한의 현실에 대해 준비된 구호들을 외쳤다.

이날 행사는 백영로 목사(공동준비위원장)가 사회를 맡아 대회장 김종권 목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주찬양색소폰양상'의 연주에 맞

춘 국민의례, 개회기도(김성구 목사), 대회사(김종권 목사), 격려사(서석구 목사), 구호제창(예국청년단), 광고(김대기 목사), 만세삼창(심만수 목사), 축도(송영성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구 목사(애틀랜타교협 회장)는 개회기도에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어 '미동남부구국동지연합회' 창설과정을 설명한 대회장 김종권 목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염려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애틀랜타 지역의 소수 인원으로 될 할 수 있겠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다가 되

듯 오늘의 이 작은 외침이 앞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삼일절이 나라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이듯이, 오늘 우리 모임은 조국의 공산화 방지를 위한 구국운동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격려사를 전한 서석구 목사(애틀랜타원로목사회 회장)는 태극기의 유래를 설명하며, 이날의 행사를 격려했으며, 김도태 공동준비위원장은 "오는 1월 창설된 구국동지연합회는 오로지 애국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사로 나선 어태용 목사(미주애국목사연합회 애틀랜타공동회장)는 "이제까지 죄와 불법에 싸우지 않았던 것을 회개한다"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저항"이라고 했다.

이어 다니엘김 씨는 탄핵정국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 반역 세력을 몰아내자"고 주장했으며, 방성호 씨는 "북한 김정은과 그 일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별연사로 초청된 탈북여성 조진혜씨는 업소문을 달고 달려와 북과 김정은 정권의 만행을 날 낚아 말리며 절규했다.

송영성 목사(화요기도회 회장)의 축도로 마친 '3.1절 구국연합결기대회'는 모든 행사준비를 외부지원 없이 핵심 준비위원들 12명의 사비로 충당해 치러졌음이 밝혀져 애틀랜타 한인사회에 신선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기사제공: 미동남부구국동지연합회)



RCA 동남부한인교협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RCA 동남부한인교협 새 회장에 황성현 목사 제 11회 정기총회, 부회장 원도연 목사 선출

RCA 동남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중윤 목사)가 지난 3월 1일 오후 8시 뉴저지 보고타교회(담임 황성현 목사)에서 제 11회 정기총회를 갖고 새 회장으로 황성현 목사를 선출했다.

총 23명의 회원 중 1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신 임원으로 선출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황성현 목사 △부회장 원도연 목사 △총무 송호민 목사 △회계 남봉우 목사.

이날 회의에서는 노회 가입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정영민 목사(예수교회 담임)를 준회원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예배에 앞서 Greater Palisades Classis 노회장 Rev. Robert L. Miller(Old Paramus Reformed Church 담임)가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황성현 목사 인도로 송호민 목사가 기도, 김중윤 목사가 요한복음 21장 15-17절을 본문으로 "나의 비전, 주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원도연 목사가 광고를, 직전회장 정광희 목사가 축도를 맡았다.

(정리: 유원정 기자)



글로벌선진학교 기자간담회에서 나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글로벌선진학교 개교 3년...

미주 최고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로 자리매김

2015년 8월에 공식 개교한 글로벌선진학교(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 설립이사장 남진석 목사) 펜실베이니아 캠퍼스(이하 GVCS Penn. Campus, 학교장 조수아강)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 참전용사 자녀학교로서 지난 130년간 운영돼온, 무려 185에이커(약 22만평)에 이르는 펜실베이니아 주정부가 공식 인정한 중고등학교 과정 기숙학교다.

이미 한국에서 그 교육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Scotland Campus 실수유주인 재단(총장 David Newell)에서 50년간 무상 사용을 협약했다. 음성, 문경에 캠퍼스를 둔 GVCS는 최근 다수의 졸업생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고대학이 위치한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최고대학에 각종 장학금으로 선발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명문대학에도 다양한 장학금을 약속받고 진출하고 있다.

이 같은 경험과 여세를 몰아 펜실베이니아 캠퍼스에서도 주변의 명문대학들(Wilson College, Shippensburg University)과 협동교육을 통해 대학교수들이 직접 가르치는 AP교과운영, 대학 실험실습실을 직접 사용하고 캠퍼스에 구성된 스마트형 교실을

활용하여 문이과 융합교육과정(STEM Based Curriculum)을 운영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진석 이사장은 "융합교육과정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실험실습을 통한 논문을 쓰게 한다. 논문은 철저하게 학생 스스로 연구를 통해 발표하게 되는데 교내 2등을 차지한 논문이 내셔널리그에 출품되어 1등을 했다"며 "1등을 한 이유는 심사위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과학교 등에서 출품된 논문은 아무리 뛰어나도 지도교사가 개입이 돼서 완성된 것이기에 심사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반면 저희학교에서 출품된 논문은 학생 스스로 모든 것을 하게 되어서 인지 심사위원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을 하게 된 것이 1등의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GVCS 캠퍼스에 비해 다양하고 탁월한 교육실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재학생들이 성과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이다.

남진석 이사장은 "STEAM은 이제 2년차에 들어가게 된다. 아마도 3-4년 후에는 카이스트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 전망이 되고 그때가 되면 MIT 등 명문대학에서도 저희학교를 방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GVCS는 최근 재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공인성적(SAT, ACT 등) 성취도 등을 볼 때, 조만간 미국의 명문대학 입시를 석권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예상되고 있다. 그 근거로서 한국의

GVCS 캠퍼스에 비해 다양하고 탁월한 교육실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재학생들이 성과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식 교육과 한국 교육의 절묘한 장점들을 살리는 교육현장의 특성이 이를 보증한다고 여길만하다. 특히 현지 미국인 교사들 중에는 공립사립을 막론하고 최고의 교사 또는 학교리더십으로 인정 받은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남진석 이사장은 "펜실베이니아 캠퍼스의 경우 유학생들이 대학입학 시 겪는 어려움은 값비싼 학비이다. 학업성취도가 높아 아이비리그에 입학승인을 받았어도 학비가 비싸 고민하다 비교적 학비부담이 적은 곳으로 진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며 "영주권자 이상의 학생들은 장학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에 현지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미국 명문 보딩스쿨(기숙사학교)의 학비 및 기숙사비의 평균 비용은 연간 5만 달러에 달하지만 GVCS 펜실베이니아 캠퍼스의 연간 학비 및 기숙사비는 3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캠퍼스환경, 교육과정이나 교사의 진용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후원 및 입학문의: (717)496-9487, (714)742-2874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사역자 청빙

메릴랜드 솔즈베리(Salisbury, MD)에 위치한 한인장로교회에서 풀타임 중고등부 사역자(youth pastor)를 청빙한다.

문의: (410)713-2896 성낙인 장로

“십자가의 길 따라가자”

KAPC뉴욕노회 82회 정기노회, 새 노회장 문종은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허윤준 목사) 제 82회 정기노회가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새영장로교회(담임 문종은 목사)에서 열렸다.

총 49명 노회원 중 목사 23명 장로 3명 등 총 26명이 참석한 이날 노회에서는 공천부 추천으로 올라온 임원을 개설했다.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문종은 목사 △부노회장 홍춘식 목사 △서기 임병순 목사 △부서기 임영건 목사 △회록서기 이윤석 목사 △부회록서기 정기태 목사 △회계 김수산 장로 △부회계 송경동 장로.

한편 허윤준 노회장은 그동안 노회 때마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담당해온 김학문 장로(윈즈장로교회)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현의 청원 문서접수는 △새사람교회에서 목사후보생 1명(김희태)과 장로 4인 증택 허락청원 △스킨즈장로교회 목사후보생(전성호) 1명 허락청원 △새생명장로교회



KAPC 뉴욕노회 제 82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 목사후보생(박화중) 1명 허락청원과 장로 2인 증택이 있었다.

또 부목사 계속청빙이 윈즈장로교회(5명), 예사랑교회(1명), 준비전교회(2명)에서 허락청원이 있었다.

회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허윤준 목사 인도로 기도 홍춘식 목사, 성경봉독 오인수 목사, 설교 문종은 목사, 성찬예식 손한권 목사,

축도 이규본 목사, 광고 이종원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목사회 기도회 및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종교개혁은 성경번역이 핵심”

뉴욕목사회 기도회 및 세미나, 강사 문석호 목사

뉴욕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3월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종교개혁(스코틀랜드) 탐방을 위한 1차 기도회 및 세미나를 가졌다.

뉴욕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3월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종교개혁(스코틀랜드) 탐방을 위한 1차 기도회 및 세미나를 가졌다.

문 목사는 “종교개혁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거대한 권력 속에서 개혁자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번역이었다며, 구텐베르그의 인쇄술과 아울러 성공적으로 보급됐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종교개혁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거대한 권력 속에서 개혁자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번역이었다며, 구텐베르그의 인쇄술과 아울러 성공적으로 보급됐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종교개혁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거대한 권력 속에서 개혁자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번역이었다며, 구텐베르그의 인쇄술과 아울러 성공적으로 보급됐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종교개혁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거대한 권력 속에서 개혁자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번역이었다며, 구텐베르그의 인쇄술과 아울러 성공적으로 보급됐다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 모친 김선실 목사 별세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모친 김선실 목사가 3월 9일(토) 새벽 1시 42분에 향년 89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관음에 배는 6일 오전 9시30분 뉴저지순복음교회(담임 이정환 목사)에서 이영훈 목사가 뉴욕교회를 해 주셨고 오랫동안 뉴욕교회를 위해 헌신으로 섬겨주셨다”며 “스름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

(유원정 기자)



청암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뉴욕 나눔의집을 방문하고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청암교회, 뉴욕나눔의집 방문 후원금 전달

뉴욕 청암교회(담임목사 차철회) 여성교회가 지난 25일 주일 오후에 한인노숙인 무료쉼터 뉴욕나눔의 집(대표 박성원 목사)을 방문했다.

집을 방문해 격려와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면 노숙인들이 쉼터에 머무는 동안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빠른 자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과테말라 선교지 방문 10월초 예정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달 말일인 28일 뉴욕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 2월 월례회를 갖고 2018년 중심 사역에 대해 논의했다.

동 기구의 2018년 사역은 과테말라 선교지 방문과 후원자의 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매년 선교지를 순회 방문하며 연말에 후원자들을 초청해서 사역보고 및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올 선교지 방문은 비수기와 현지 기후 등을 감안해 10월초로 예정하고 있으며 선교지에 대한 사전 정보 습득 및 훈련 등을 하게 된다.

회장 유상열 목사는 홈페이지(breadngospel.org)를 좀 더 활용해서 후원자들에게 선교지 소식과 아동에 관한 정보 제공을 다짐했다.

이날 신규 후원으로 뉴욕정교회(담임 주효식 목사)와 지난달 신규 가입한 빛과소금교회(담임 정순원 목사)의 후원아동 연결도 확인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이스라엘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명 목사, 특송 안경순 목사, 설교 박진하 목사, 합심기도, 축도 유상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진하 목사는 “믿으면 그대로 된다”(막11:20-2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쓸이 하는데 믿음은 신령과 확신을 의미한다”며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믿음을 갖고, 듣고, 될 줄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기아대책이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믿음으로 열매 맺는 기아대책 회원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동후원(아동 1명당 월 30달러)을 주 사역으로 하는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콜롬비아(김해정 선교사)와 페루(김중원, 최은실 선교사), 코트디부아르(김형구, 이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과테말라(장경순, 박윤영 선교사)를 사역지로 활동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NY, NJ, and Hawaii regions,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삼일절 정신 후손들에게 심어줘야”

남가주목사회 주최 삼일절 기념예배



남가주목사회 주최 삼일절 99주년 기념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밀양 산자락의 별빛교회 학생들이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찬양하고 있다

“주님 나라 별빛 되겠다는 꿈 안고 돌아갑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밀양청소년 19명 미국 비전트립

경남 밀양 산자락의 별빛교회(담임 김태군 목사) 학생 20명이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초청으로 지난 2월 19일 미국을 찾아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한아름 안고 27일 오전 귀국했다.

유치부에서 고등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19일 LA에 도착한 뒤 한 주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비전 트립을 통해 김태군 목사, 부인 송은정 사모, 김만준 전도사 등 인솔자들과 함께 웃음과 배움, 조건 없는 사랑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에서 마음껏 소리치며 노는 시간을 가진 것은 물론 바이올리나대학교, 벨리크리스천 초등학교 등을 방문해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미국 교육의 일면을 엿보고 디스커버리센터, LA 사이언스 뮤지엄, LA 다저스 야구장, 그리피스 천문대, 디즈니 콘서트홀을 견학하며 더 넓은 세계를 가슴에 품었다.

또한 교인 가정에서의 민박을 통해 아끼없는 섬김을 받으면서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웠다. 이번 비전 트립은 남가주사랑의교회가 이들의 항공권을 물론 숙식, 관광, 견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해 이루어졌다.

KBS 전국노래자랑 작년 연말 결

선에서 우승한 별빛교회 김태군 목사의 아름다운 사연을 언론을 통해 접한 남가주사랑의교회 노창수 담임목사가 전화통화를 한 결과 김목사가 2년 전 아이들에게 미국 비전 트립을 약속한 사실을 알고 당회 결의를 추진한 것이 시작이었다.

오는 4월 탄생 30주년을 맞는 남가주사랑의교회의 교인들은 광고를 듣고 형편대로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나섰고 몇 주 전 주일예배에서 외부 강사로 설교했던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전 담임)도 1,000달러를 쾌척하기도 했다.

별빛교회 김태군 목사와 학생들은 남가주사랑의교회의 정성 어린 섬김에 감격을 금하지 못하면서 담례로 지난 23-25일 열린 새생명축제에서 찬양을 하고 주일 오후에 작은 음악회를 통해 눈시울이 젖어드는 감동을 선사했다.

사모의 딸기잼 판매와 본인의 별목장 등에서의 노동으로 할머니 2명 외에는 아이들이 전부인 교회를 꾸려가는 김태군 목사는 “남가주 사랑의교회가 베풀어준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며 “처음에는 아이들이 내 덕분에 미국에 오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은 아이들 때문에 내가 미국에 올 수 있게 된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며 눈물을 흘렸다.

(정리: 박준호 기자)

제99주년 삼일절 기념연합예배가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샘신 목사) 주최로 4일 오후 4시30분 미주 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샘신 목사는 “99주년을 맞이하는 삼일절 행사를 열게 돼 감사하다”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하게 선진국으로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은 바로 독립만세 정신이었다. 우리는 이 날 삼일절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삼일절 기념연합예배를 통해 삼일절 정신이 한인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세계까지 퍼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샘신 목사의 사회와 남가주목사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최다니엘 목사(부회장)가 개회 기도했으며 김헬렌 목사(부회장)가 성경봉독, 그리고 남가주목사회장로부부 찬양단이 특별 찬양했다. 이어 피종진 목사(남서부 중영교회 원로)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속4: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피종진 목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수난사다. 한국기독교는 순교사다. 두 나라는 수난속의 역사를 지내온 공통점이 있다”며 “바벨론에서 70년을 살 때 안타깝고 고통이 심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는 힘으로 아니고 능으로 하지 아니 하되 나의 신으로 영으로 되느니라’라는 말씀은 그 당시만이 아닌 우리 민족사 하나님 기도 속에 축복으로 주신 것”이라 말했다.

피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망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빛을 비추시고 계시기에 소망을 가진 자들은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소망의 역사를 성령께서 함께하실 것”이라 강조했다.

설교에 이어 레위남성성가단이 특송을 불렀으며 엄규서 목사(중영교회)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기념식 및 특별기도는 장동의 남가주한인목사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윤에스터 목사가 미국국가 불렀으며 애국가 제창을 했다.

이어 이연주 회장(31여성동지회 회장)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으며 삼일절 노래를 이날 모인 참석자들이 함께 불렀다.

이어 미국과 대한민국, 한인커뮤니티와 2세, 남가주 교계와 교회를 위해 합심 기도가 있던 후 심진구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 기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나성영락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예배에서 예배참석한 모든이들이 45주년을 기뻐하며 축하하고 있다

“만민을 위한 교회되길...”

나성영락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예배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설립 45주년 기념예배가 4일 예배 시간에 열렸다.

윤성환 목사 인도로 열린 3부 예배는 고영식 장로가 기도했으며 찬양팀이 찬양했다. 이어 박은성 목사가 ‘모든 만민을 위한 교회’(사 56:6-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은성 목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라 말하며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신분과 지위, 학식과 소유의 유무를 떠나고 성별, 나이, 경험, 지역, 학벌, 그리고 직분을 떠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특별히 이인사회에서 교회는 차별 편견 반복 없이 평등

연합 포용 용서가 느껴지는 곳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나 모여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다. 이 땅에서 하나님 이웃사랑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나라 모험이 이뤄지는 곳 이 교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있다.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내가 원하는 곳, 좋아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려 하기 때문”이라 지적 했다.

그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 만민이 나와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설립 45주년을 맞이한 나성영락교회가 모든 사람들 품어 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상처주고 떠난 사람들, 시험에 들어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어머니의 마음같이 품는 성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비영리단체 세금보고 무료강의 안내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세금 보고 관련 무료 강의를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그레이스미션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 내 Grace Library의 GL2 강의실에서 16일(금) 오후 1시-3시 개최한다. 강사는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인 제임스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IT, 비영리단체 및 비즈니스선교 담당교수)

▲문의: (714)393-4595

나성영락교회 은퇴 및 임직식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장로, 집사, 권사 은퇴 및 임직식을 3월 11일(주) 오후 4시에 갖는다.

▲문의: (323)227-1400

아리조나 시에라비스타연합장로교회 사경회

아리조나 시에라비스타연합장로교회(담임 양우광 목사) 사경회가 9일(금)부터 11일(주)까지 개최한다.

▲문의: (520)378-2466

한길교회 ‘함께하는 예배’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는 3월 ‘함께하는 예배’를 10일(토) 오후 5시에 갖는다. 강사는 이학준 교수(풀러신학교)

▲문의: (323)735-0200

무지개가족선교회 15주년 감사축제

무지개가족선교회(대표 이지혜 선교사) 15주년 감사축제가 11일(주) 오후 5시 갈보리한인장로교회(담임 김정찬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323)350-3046

라크마 2018 전반기 교회순회 찬양집회

라크마(Los Angeles Korean-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 단장 최승호 장로, 음악감독 윤임상 교수)가 2018년 전반기 교회 순회 찬양 집회를 3월 7일(수) 선랜드 은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에 이어 오는 23일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담임 김일형 목사)에서 갖는다. 시간은 오후 7시30분.

▲문의: (213)239-3573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장례절차와 상속...” 주제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제4회 소망포럼 성황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에서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0시30분 어바인에 위치한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비전센터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소망포럼을 개최했다.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장례절차와 상속: 가족을 위해 더 미루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4명의 각 분야 강사들이 나와 장기 기증, 시신기증, 매장 과 화장, 유산 상속 및 기증에 관해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들에 대해 강의했다.

주제 강연에 앞서 아르모니아싱어즈의 테너 김성봉 씨와 소망합창단의 소망의 노래에 이어 김성봉 씨의 특송을 들은 후 유분자 이사장의 환영사 후 먼저 발제에 나선 장기기증 기관인 원 레가시의 기증 담당자인 이승훈 씨는 장기 기증 대기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매일 22명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장기나 조직 기증을 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장기 기증으로 말미암아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조직 기증으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소망포럼이 베델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로 50명의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UCI 시신기증 프로그램 부장인 마크 부룩스 씨는 2008년, 3명에 불과했던 한인 시신 기증자들이 소망소사이어티의 활약으로 2017년에는 전체 기증자의 44%까지 늘어난 수치를 제시하며 소망소사이어티에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 강사로 나선 상속전문 변호사인 박영선 변호사는 최근에 수정된 상속법에 대해 설명하고 남길 유산이 있을 경우, 미리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해 놓아야 사후에 유족들이 시간과 재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주제 강연과 관련된 여러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UMC남가주 여성교회 연합회 주최 제29회 선교합창제에서 목회자 부부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다

17교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

2018 UMC남가주여성교회연합회 선교합창제 성황

2018 연합합리교회 남가주여성교회연합회(회장 최경애 권사) 선교합창제가 월서연합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4일 오후 4시에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경애 회장은 “남가주 각처에 흩어져있는 여성교회 회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모여 찬양드릴 수 있게 됨이 감사하다”며 “오늘 월서교회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바라며 연합회를 통해 견혀진 선교헌금이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미에 한인코디네이터와 김일희 음악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찬양제는 각 교회 여성찬양대원들이 무대에 올라 선교합창제를 위해 준비한 곡들을 아름답게 불렀다.

(박준호 기자)

중고등부 사역자(youth pastor) 청빙

메릴랜드 솔즈베리(Salisbury, MD)에 위치한 한인장로교회에서는 풀타임 중고등부 사역자(youth pastor)를 모집합니다.

- 자격: 신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 첨부), 자기소개서
- 제출서류는 yellowtree36@gmail.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문의 전화: 410-713-2896(성낙인 장로)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alisbury (Salisbury, MD) is seeking a youth pastor(full-time) to lead our youth group.

- Qualification: Graduated an accredited seminary
- salary&Benefits: Competitive salary based on qualification and experience
- please submit a personal statement and a resume that includes a photo of yourself via email only(yellowtree36@gmail.com)
- here is no set deadline, but we will taking applications until we find someone.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Elder nakin sung at 410-713-2896.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의 소식을 전합니다.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3·1절 99주년 한국교회 현장

3·1운동 99주년을 맞은 1일 한국교회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선배 신앙인들의 묵숨 건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가 하면 평화 통일을 향한 금식 기도과 구국 기도회도 이어졌다.

“한국교회 비판 받아도 갈 길 가야”

“(3·1운동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독립운동 무용론이 있었습니니다. 하지만 3·1운동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한국교회 지

21%가 넘었음을 강조했다. 이승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부총회장은 “3·1운동의 정신은 하나 뒀이었다”며 “분열운동의 위장된 포장과도 같은 지금의 한국교회연합운동에서 벗어나 교단과 놓여온, 이념을 뛰어넘는 하

“3·1운동 ‘하나 됨’ 의 정신 잇자” 신앙 선배들의 뜻 되새겨

도자들은 당장에 비판을 받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면 마땅히 나아가야 합니다.”(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 한국교회총연합회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평통연대) 주최로 열린 ‘한국교회 3·1절 99주년 기념 예배 및 심포지엄’에서는 3·1운동 정신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계승할지에 대한 제언이 쏟아졌다.

이치만 장로회신학대 한국교회사 교수는 “한국 기독교가 외래종교라는 인식의 틀을 벗어나게 된 대표적인 계기가 3·1운동”이라며 “제국주의에 기독교가 맞서 항거한 일은 세계사에서도 드물다”고 평가했다. 1919년 당시 기독교인 인구가 1.8%밖에 되지 않았지만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이었던 점과 3·1운동 직후 3개월간 일제에 기소된 이들 가운데 기독교인 비율이

나 됨을 위해 반성과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행된 기념예배에서 설교한 박종화 평통연대 이사장은 “이 땅의 남은 과제는 평화와 통일”이라며 “평화 통일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3·1운동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 전국 교회가 하나 돼 참여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라며 “그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북한 땅 회복하는 느헤미야 돼야”

남북통일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와 교회들은 한자리에 모여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이날 경기도 성남 양현로 만나

교회(김병삼 목사)에서는 ‘통일과 소망’을 주제로 북한과 통일을 위한 ‘원코리아연합기도’가 진행됐다. 원코리아연합기도는 남북통일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각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순수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연합기도회다.

설교자로 나선 서정인(한국컴패션 대표) 목사는 “하나님은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신다”며 “유대 동포들의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금식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한국교회 성도들 역시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가 사라지고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도 이어졌다. 기도 인도자가 북한 동포 수백만 명이 굶어죽거나 박해당할 때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자고 외치자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교계 원로들도 구국 메시지

서울 한복판에서는 ‘3·1절 구국 기도회 및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미스바대각성기도성회와 여호사밧기도성회, 하나님나라군대선교회 등이 주최한 대회에선 전국에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느헤미야가 지은 성벽을 두고 전문가들은 마치 한 사람이 지은 것처럼 튼튼하고 흠이 없다고 평가한다”며 “여러 통일선교단체와 교회들 역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 북한 땅을 회복시키는 오늘날의 느헤미야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서전 ‘거리 소년의 신발’을 쓴 탈북민 이성주(31씨)의 간증도 이어졌다. 그는 “한국 성도들이 먼저 3만2000여명의 탈북민과 친구가 되도록 기도하자”며 “통일이 될 때 그들이 북한에 가서 교회를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한다”고 전했다.

만나교회 2층 시온성전을 가득 채운 3000여명의 성도들은 점심식사로 거른 채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지혜로운 전략이 마련되고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통일을 위해 무르익을 수 있도록 간구했다.

서 모인 성도 5만여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교계 원로목사들은 연단에 서서 릴레이 설교를 이어갔다. 이태희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는 “역사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주 한국교회인론회 대변인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축복”이라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자”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웠다” 등의 플래카드와 태극기 등을 들고 광화문 일대를 거닐며 행진했다. 헌법개정 등을 통한 양방제 통일 반대, 한·미동맹 강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의 구호를 외쳤다.

3·1운동 고초99년만...손녀가 대신 훈장

조선해 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 조부 조양원 애국지사

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 조선해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대신 수훈했다. 훈장 주인공은 그의 할아버지인 조양원(1888-1939) 애국지사다.

조 애국지사는 생전 황해도 해주 금산감리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맡아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탁사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1919년 3월 14일 황해도 해주군 금산면에서 주민 18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조선총독부 검사는 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

를 기소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피고 조양원이 태극기 1개와 ‘한국독립만세’라고 적힌 깃발 2개를 만들어 다른 민중 약 180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여 치안을 방해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는 그해 5월 14일 열린 1심 재판에 패소한 뒤 상고했으나 6월 28일 다시 열린 고등법원 재판에서 기각돼 해주형무소에서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당시 그의 나이 31세였다. 이날 수훈으로 조 애국지사는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제로부터 고초를 겪은 지 99년 만이다. 하지만 대신 수훈한 손

녀 조 연구위원은 조 애국지사의 얼굴을 모른다. 조 연구위원의 부모와 일가친척들이 6·25전쟁 당시 급히 남쪽으로 피신하느라 조 애국지사와 관련된 사진과 자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해주에 흑시 기록이 남아 있는지 모르나 확인할 길이 없다.

조 연구위원은 “친척들로부터 할아버지께서 당시 해주의 부농이었고 이웃에게 나누기를 좋아해 사후에 송덕비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비밀리에 독립운동가들을 도왔고 ‘불령선인’(일제 식민통치를 반대하는 조선인)으로 일제 감시를 받았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6·25전쟁 당시 월남한 피난민들은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제대로 선조들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를 갖고 있

다”며 “남북 대화를 통해 3·1운동 같은 역사적 기록을 공유하는 화합의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수는 죄인의 친구 돼 주셨다...”

‘간헐 자의 빛’ 이 된 한국교회 교정선교

한국교회 교정선교의 역사는 행정체도의 근대화 작업이 시작된 갑오개혁(1894년) 이후다. 교회사회학자들은 구한말 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 교도소에서 개인 전도를 시작한 것을 교정선교의 시작으로 본다.

1948년 정부조직과 함께 교도소에 목사를 교무과장으로 세우고 종교집회와 상담을 실시했다. 그러나 61년 형부는 목사의 교무과장 보직 법령을 폐기하고 일반 교정직원을 임명했다. 83년부터 각 종교 종교위원회와 교화위원을 위촉했으나 90년 책임지도위원제가 없어지면서 교정선교 활동이 위축됐다.

적박한 환경이지만 교정선교는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가 발간한 ‘2017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기독교 종교위원 908명(2016년 말 기준)이 교정선교를 담당하고 있다. 교정선교의 방향도 인격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곳이 기독교세진회다. ‘세진(世進)’은 갇힌 형제자매가 복음으로 변화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다. 교도소 행사지원과 교도관 영성 강화를 위한 사명자 세미나를 연다. 또 큐티집과 큰글씨 성경보내기, 세진음악회를 연다. 써움자의 사회 적응을 돕는 ‘희망등대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새생명운동본부는 도서와 TV 기증, 교도소수련회, 안과진료 등을

통해 수용자 복지와 신앙훈련에 힘쓰고 있다. 매년 교도관 부부 세미나를 진행하고 모범 교정공무원을 선정, 시상한다.

담안선교회는 씬터를 제공하고 공장을 세워 출소자의 자립을 돕고 있다. 우물가선교회는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출소자에게 일 자리를 찾아준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수용자 자녀가 담당하게 사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미쳐서는 안 된다며 장학금을 전달한다.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은 민간인 참여의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교회와 연합해 2010년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재부역률(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교도소에 수용되는 비율) 5% 이내를 목표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정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슬로건 아래 수용자에게 참되고 성결한 아버지로 살게 하고 있다. 아이나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를 낭독하거나 세족식을 할 때 행사장은 눈물바다가 된다.

법무부 교정기독교연합회는 기독교도관으로 구성돼 있다. 순회예배를 드리고 매년 찬양 페스티벌을 열어 교정선교의 의미를 되새긴

다. 한국교정선교회는 퇴직 기독교도관을 중심으로 설립했다. 사도상시상과 함께 수용자 간증 수기공모 및 발간, 자선음악회를 열고 있다.

이들 단체와 함께 전국교회가 교정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의정부예화교회는 늘 출소자로 복적이다. 교인 대부분은 출소자이고 나머지는 그 가족과 교정선교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다. 교인들은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안다. 자선스레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 매년 교도소에서 두 차례 부흥회를 연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정복지선교회는 교도소 예비지원 사역을 펼친다. 주일에는 기독교 서적이나 잡지, 신문 등의 우편발송 작업을 한다.

교정선교 전문가들은 교정선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교정선교 사역자를 육성하고 총회와 노회, 교회에 교정선교위원회의 후원을 조직하는 것을 대안으로 꼽았다. 법교단 교정선교연합기구 설립, 노회별 전담교역자 파송도 교정선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노병관 한국교정선교회 이사는 “수용자나 출소자라고 하면 거리를 두고 상대하기 꺼린다”며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돼 주셨다(눅 15:1-7). 어려움을 처한 이들을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크리스천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혐오표현규제법안’ 일단 철회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가 보름 만에 철회하기로 한 ‘혐오표현규제법안’.

동성애·이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혐오로 낙인찍어 전면 차단하려는 ‘혐오표현규제법안’이 발의된 지 15일 만에 전격 철회됐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문재인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동성애 비판만으로 처벌 가능

김부겸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혐오표현 규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고 사회적 공론이 필요해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법안은 한국사회에서 여성혐오, 전라도 등 특정지역에 대한 혐오, 차별이 심한 혐오범죄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해 발의하게 됐다”고 주

“사회법정서 패소하면 출교 조항 무효”

기감 목회자모임 5일 기자회견서 발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전명구)가 지난 1월 감독회장선거무효 판결 이후 내용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임법의회에 대해 무효소송이 제기돼 교단 내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교단지 기독교타임즈는 경영진과 기자들 간 갈등으로 한 달째 업무 파행 상태다.

기감 목회자모임 ‘새물결’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기감 헌법 ‘교리와 장정’에 입법된 재판법 개정안 이 상정되려면 임법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당시 개정안 발의서의 서명 인원은 175명이었다. 새물결은 “중복 서명자·비회원 등 17명을 뺀 실제 서명 인원은 158명으로, 정족수 167명

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11일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32회 총회 임법의회 결의무효 소송을 신청했다. 최종 재판 결과는 오는 19일 나올 예정이다.

앞서 기독교타임즈 이사회는 지난 2월 소속 기자 전원을 지시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은 5일 “정식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 권한이 없는 A목사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을 두고 지시 불이행에 패소했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해 32회 총회 임법의회에서 현장 발의를 거쳐 통과됐다.

새물결은 이 조항이 현장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현장발의안이 상정되려면 임법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당시 개정안 발의서의 서명 인원은 175명이었다. 새물결은 “중복 서명자·비회원 등 17명을 뺀 실제 서명 인원은 158명으로, 정족수 167명

송 사장은 서면을 통해 “편집권 독립을 이유로 최대한 간섭하지 않았다. 편집국장 서리로 보한 A목사는 임명 절차와 자격에 하자가 없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국가와 지도자위한 기도’ 넘어 세계평화...

제50회 국가조찬기도회 고양 킨텍스서 개최

올해로 반세기를 맞은 국가조찬기도회(회장 채의숙 장로)가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기도회는 그동안 국민의 평화와 복지,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등을 위해 교회와 정부의 관계가 악화된 1975년을 제외하고 한 해도 빠짐 없이 열렸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교회 원로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를 위해 두 손을 모았다.

대통령이 처음 참석한 기도회는 1968년 5월 1일 서울 위귀호텔에서 열렸다. 이를 제1회 국가조찬기도회로 보고 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윤인식·정일형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과 방승원 대법원 판사, 김옥길 이화여대 총장 등 사회 각계 지도층이 부정부패가 없었는지 나라가 번영하며 조국이 통일되길 기도했다.

“법이 제정되고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판례가 쌓이게 돼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법이 만들어진다”면서 “앞으로 혐오규제 논의는 계속돼야 하며 그러다 보면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에 대해선 “종교적 신념은 존중하며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현직 장관이 앞장선 진짜 이유는

김 의원의 ‘초강력’ 혐오표현규제법안은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다. 동성애·동성혼 허용 헌법개정 시도,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본정책 추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현상을 젠더(gender) 폭력으로 규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등은 모두 사회적 성, 즉 젠더 평등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젠더는 양성애 동성애 소아성애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성 개념

‘동성애·이단 처벌’ ...건전한 비판도 ‘혐오표현’ 규정

장했다. 이어 “기독교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은 서로 존중해야 하는데 법안이 그런 것(종교적 가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좀 더 거쳐야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 의원 20명이 지난 13일 공동 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은 2007년부터 나온 차별금지법안 9개 중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꼽힌다. ‘성별 종교 사상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혐오표현을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문이 들어 있다. 일례로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유행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른 법안은 차별행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규정했지만 이번 법안은 차별뿐 아니라 혐오·선동행위까지 포함시키고 벌금 상한선도 대폭 늘렸다. 혐오표현을 범오

지 않은 ‘혐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양성·사상·표현·종교의 자유를 통제하려 했다는 것이다.

혐오는 내면의 감정을 뜻하기에 법적으로 그 범위가 모호하다. 법적 용어가 불분명하면 명확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혐오는 개인 특성에 대해 차별 폭력 또는 증오를 선동·고취하는 폭력적 행위”라면서 “김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하더라도 입법 활동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과 충고, 혐오의 차이점, 내면의 혐오감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다.

법안은 또 악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2-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까지 몰도록 하고 입증 책임을 혐오를 한 사람에게 부과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범으로 양성(sex)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혐오표현규제법안으로 보호하려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보인 윤리 도덕적으로 한국사회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 나와 증명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증명은커녕 혐오표현규제법, 차별금지법으로 상대방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원평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도 “만약 혐오표현규제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동성혼, 중복주의, 신천지, 이슬람,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유행하는 에이즈의 심각성을 비판하는 행위는 전면 차단된다”면서 “법안 밑에 흐르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혐오표현 규제 논리와 젠더 이데올로기의 실체부터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도소 선교칼럼 (40)

고통속에서 체험하는 위로

아침에 교도소 목사실에 도착하니 저와 함께 사역하는 교도소 목사님이 해밀튼이라는 재소자의 아내가 자살 하려고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었다는 슬픈 소식을 그 재소자에게 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들어도 교도소에 재소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몹시 힘든데 그것보다 더 재소자들을 충격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가족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해밀튼을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재소자가 울며 복도를 걸어가는데 교도관이 그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도소는 의료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이 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혹은 그가 자살 충동에 시달리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신과 진단을 받도록 의료실로 보냅니다.

그는 바로 부인의 자살 소식을 전해들은 재소자였습니다. 그를 일찍 방문하려고 했지만 모든 일을 끝내고 방문하니 벌써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5시 45분부터는 모든 재소자들이 자기들의 방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했으니 그래도 해밀튼을 방문하여 그를 위로하고 상처의 치유를 돕는 변화프로그램 선교회 책을 여러 권 주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그의 얼굴은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죽었을 때 특히 자살로 갔을 때 재소자들이 늘 하는 질문은 죽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해밀튼의 질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자살을 했으니 구원을 받았는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살다가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경우가 있음을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여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그의 마음의 상처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또 그의 가족들을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위해서 기도해주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그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몸이 계속 부들부들 떨리니 방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재소자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자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방을 함께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따라 그의 룸메이트가 다른 교도소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나왔으므로 그는 그의 감방에서 혼자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과 같이 방을 나누고 싶냐고 물어보니 아론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와 같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론은 감방 안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저는 그가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주었습니다. 또 그가 예배에 참석할 때 설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였을 때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영적인 지도자들을 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해밀튼은 만일 함께 있을 재소자를 찾을 수 없다면 방문이라도 열어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며 감방에 갇혀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가끔 방에서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교도관에게 그 말을 하니 방문을 열어놓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감방에 누구 함께 있어야 할지는 좀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교도관에게 해밀튼이 아론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론은 해밀튼에게 자기가 교도소에 있었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고 자랑하게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음성엔 해밀튼은 마음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왜 해밀튼이 아론에게 도움을 받고자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전에 아론이 예배에서 그 간증을 했을 때 저 또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 다. 이 일을 통해서 아론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론에게 해밀튼의 룸메이트가 되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꽤 좋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교도관에게 이야기하니 교도관이 즉시로 아론이 해밀튼의 방으로 옮기도록 선택

를 해주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방을 옮겨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기 전에는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교도관이 그것을 금방 허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과 몸 전체가 문신으로 가득 찼고 귀에는 큰 귀걸이를 한 아론은 누가봐도 조폭이었으며 힘든 삶을 살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몇년 전까지 만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했던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다시 잘못된 길로 갔었다면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재소자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론을 해밀튼이 룸메이트로 원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그것을 즉시로 가능하게 만든 교도관에게 저는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해밀튼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 다. 해밀튼을 돕기 위해서 그의 룸메이트가 된 아론, 교도관의 배려와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교도소 선교회를 하라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날 저는 해밀튼과 아론을 방문했습니다. 해밀튼의 그 고모로 찌그러진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성령으로 충만해졌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밀튼은 아내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성령충만한 아론이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 베풀어 주셨다고 자랑하게 말했습니다. "아론보다 더 나은 룸메이트를 찾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의 음성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놀랍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라고 말하자 아론은 "전날 저녁에 '예수님과 걷는 길'을 읽어주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해밀튼은 더 이상 몸을 떨지 않게 되었고 그날 가슴이 아파서 의료실에 갔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슴이 아플 때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와주세요.

(14면으로 계속)

빌리그림 목사 추모시



이정근 목사
(미주성경대학교 초대총장)

지구전도전쟁 총사령관이셨습니다

그림 목사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군요. 닷새 전 고요한 아침 단잠을 주무시듯 소천하셨습니 다. 평생토록 열정적으로 Love one another"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이셨는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며 주님 품에 안기셨네요.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 코리아인들은 누구나 1973년 5월 서울 여의도집회를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립니다. 마지막 집회는 110만 명 넘게 모여 기독교 역사 이래 최대집회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멘텀을 만드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림 목사를 우리 민족 구원을 위한 특별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평양에서 공부했던 루스 벨(Ruth Bell) 양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씨를 말린 북녘 땅에 가서 김일성에게 성경을 선물하셨고 김일성대학교 젊은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림 목사의 소천 소식을 듣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조그 남쪽 1945 S. Hill St.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별명건물이 서 있습니다. 31세 되시던 해에 바로 전도집회를 열었던 그곳에 기념동판이 있습니다. 당시 흥청거리는 도시, 독한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여기서 전도집회가 성공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그러나 열심 있는 기도, 지혜로운 동원전략,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도우셔서 당초 녀 주 동안만 하려던 전도집회가 8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고(1만1천명), 성령의 큰 역사로 인하여 엄청난 규모로 회개와 영성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LA 성시화운동의 햇불을 높이,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구복음화의 큰 햇불 점화식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그 때부터 복음전도사 사명받은 몸을 던져 자신을 불태우셨습니다. 빌리그림 함복전도협회(BGEA)를 조직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의 모든 조직 중에서 70주년이 되는 오늘까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은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힘찬 박수를 받는 모범단체로 평가됩니다. '오직 영혼구원이라는 제1목표에만 철저히 헌신한다. 전도집회는 현지교회들과의 적극 협력을 통하여 진행하고 현지교회의 건강화를 위하여 공헌한다. 전도집회에서 결신한 사람들은 그들의 주거지에 가까운 교회에 정착하도록 한다. 이 전도집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모범이여야 하며 따라서 사소한 부도덕성도 용납하지 않는다. 재산/재정/물품은 부정이나 낭비가 전혀 없도록 하며, 완전공개하고, 절대정직과 최대효를 원칙 아래 관리한다' 이런 원칙들이랍니다.

단체 운영 그 자체가 은혜와 감동이 넘쳐흐르는 한 편의 아름다운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래함 목사는 이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굳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말씀 그대로 복음전도사역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교회지도자들이 있어서 목사님의 생활철교가 대조적으로 더욱 찬란한 큰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 목사는 누구나 지구마를 전도전쟁 전면전을 지휘하시는 총사령관이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전쟁 수행을 위하여 전면전과 총력전을 펼치시며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셨습니다. 185개 국가의 큰 도시들에서 복음전도 집회를 가지셨습니다. 2억명 넘는 심장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무섭게 발전해가는 매스미디어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습니다. 인쇄매체, 책출판과 보급, 전파 미디어, 영성미디어, 영화제작과 보급, 인터넷, 그리고 지금은 사회통신망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송출하셨습니다. 세계 각국의 최고통치자를 만나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신앙의 자유 폭을 크게 넓히셨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국가조찬기도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 전면전 전도의 큰 날개였습니다. 베를린, 로잔, 마닐라, 방콕 등지에서 150여 국가를 대표하는 교회지도자들을 모아 국제복음전도대회 개최를 주도하신 것과 특히 '로잔 연합'을 함의공약하게 된 것은 지구복음화의 크나큰 신학적 전략적 초석이 되었습니다. 로잔대회의 주제 "Let the earth hear His voice"(지구로 하여금 성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자)가 바로 그것을 웅변합니다.

플로리다성경대학(Florida Bible Institute) 졸업식 전달이었습니다. 그림 목사는 실상 공부벌레는 아니었습니다. 성적이 평균 C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졸업생 후보들이 친구모임을 가졌는데 베라 리수(Vera Resue)라는 여자 졸업생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어두운 세상의 큰 빛이 되게 하십니다. 루터, 웨슬리, 무디 같은 이들은 광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같은 지도자가 출현할 때가 왔습니다. 이들 명단에 우리 중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앞에 있는 큰 도전입니다"(Just As I Am, 59-60). 그 예언이 빌리 그림 목사님에게서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세기에는 빌리 그림 같은 지도자가 우리 미주한인들 후손 가운데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결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루터, 칼뱅, 웨슬리, 무디, 그리고 그림 같은 목자요, 전도자요, 선교사일 것입니다.

(2018년 2월 26일,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린 추모예식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회: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회: 오후 2: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시(토)</p>	<p>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회: 오후 1:20 영아원(공소-KDC, 영평대원센터) 주일 학교: 오전 9:20 2부: 오전 9:20</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주일 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 학교: 저녁 7:30</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계속하여 높아져 가는 우리의 풍요를 위해 일하는 진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영양회: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금요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이영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름다운찬양회: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아원(공소-KDC, 영평대원센터) 주일 학교: 오전 9:15, 11:3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9:3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영아원(공소-KDC, 영평대원센터)</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경대명회: 오후 7:20(금)</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p>	<p>중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청년)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주일 7부예배: 오후 2:00(청년) 주일 8부예배: 오후 2:00(청년)</p>	<p>토렌스인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청년)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특별기고

전호진 박사 (미얀마개혁장로교신학교 학장)



빌리 그레함과 한국동란 (중)

정통 마르크스주의란?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이다. 정치이론은 계급투쟁이고 역사이론은 유물사관이다. 경제학은 잉여 가치설이다. 공산당 선언은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공산사회 건설이 공산주의자들의 최고 목적이...

이 아니라 신학자 폴 빌리히의 표현을 빌리면 의사종교(pseudo-religion) 국가이다. 국가는 무너져도 종교 이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통일된다 해도 북한 주민들의 주체사상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한국동란과 빌리 그레함

그레함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 함께한 빌리그레이함 목사. 왼쪽부터 조시부시, 빌클린터, 빌리그레이함 목사, 프랭클린 그레이함목사, 지마타.

언제나 전쟁을 필요로 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동시에 혁명을 확산시키는 데는 어떠한 범죄도 정당화된다. 이것이 한국동란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는 한국동란 원인을 한국 민족주의(동족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 같음)에 돌리지 않고 마르크스와 스탈린에게 돌렸다.

한국동란이 1년 이상 계속되자 미국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이 분위기를 감지한 그레함목사는 1951년 9월 "결단의 시간"(Hour of Decision) 설교에서 한국동란은 미국과 영국이 포츠담과 얄타회담에서 스탈린에게 너무 양보한 대가라고 비판했다. 이 두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은 결국 프라하와 베를린에, 그리고 북한에 소련군 진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었다. 소련은 일본과 불과 5일만 전쟁을 하고 북한에 진주하여 결과적으로 한국동란이 일어나게 했다. "스탈린을 믿은 대가는 죽음뿐이었다"고 외쳤다. 그는 스탈린을 거의 사단으로 여기고 한국동란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힘인 스탈린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 사단은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을 미워하게 한다"고 하였다. 1951년 6월 미 공군기 6대가 훈련 도중 충돌하는 대사건이 일어나자, 이 사건을 공산주의자들과 좌익들(left winger)의 음모로 보고, 그들을 "미국의 배신자, 한국전쟁에서 우리 청년들을 죽이

제사업과 복음 전도를 병행하는 것을 주도하였다. 당시 한국 교인들은 미국 기독교의 구호품을 많이 받았었다. 그레함은 한국이 미래에 전도하는 나라가 되도록 성경을 많이 보급하도록 하였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승만 박사가 반공포로를 석방할 것을 크게 지지하면서 인민군 포로 중에 신자들이 많은데, 왜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느냐고 반공포로 석방을 비난하는 자들을 도리어 공격하였다. 당시 많은 중공군과 북한 포로들은 중국과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레함은 소련이 제안한 휴전회담은 공산주의에 속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미국의 가치관과 기독교 이념을 양보하는 행위로 보았다. 당시 국무장관 딜레스, 주한 유엔 사령관 리치웨이 장군도 소련의 휴전회담 제안은 우리를 자라(sleep)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그들의 통찰력은 예리하였다. 그레함은 레닌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였다. "때로는 지그재그로 나가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고, 때로는 선택한 것도 포기하기도 하고, 여러 방도를 마련하도록 시도하라." 그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성탄절 전에 한국을 방문, 전방 미군 부대에서 설교하고 천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맥아더 사령관의 해고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를 한국

한국동란은 '공산주의와 기독교간 전쟁 시작' 으로 해석 맥아더 해고는 반공주의자들 동맹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한국동란을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보았다. 한국동란은 마르크스주의의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한 설교에서 한국동란은 공산주의와 기독교간의 전쟁의 시작이

라고 하였다. 맥아더 원수도 한국동란을 신학적 전쟁으로 해석했다. 그레함은 마르크스주의의 비도덕성과 호전성이 한국동란을 일으켰다고 본다. 마르크스주의는

는 자들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동란이 일어나자 미국 북유럽의 연맹(NAE)을 동원하여 구

의 은인으로 존경한다. 그러나 객관적 평가는 극명하게 대립한다. 다글라스는 기독교 관점에서 맥아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

래함과 많은 북유럽의 지도자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 원수를 해고한 것을 엄청나게 비판하였다. 그로 인하여 트루먼의 인기는 바닥을 쳤다. 당시 미국 북유럽의 자들과 그레함은 트루먼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맥아더의 해고는 반공주의자들의 동맹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다. 맥아더는 일본 기독교 재건과 일본 북유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가 해고되자 미국 선교사들과 일본 기독교 신자들은 그의 해고는 일본 기독교에 큰 타격이라 실망하였다.

Michael Breen은 저서 "새 한국: 비즈니스, 역사 한국인"(The New Korean: The Business, History and People of South Korea(2017년 출간))에서 맥아더 장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이승만 대통령과의 만남은 극적인 장면을 소개한다. 맥아더 장군은 "자비로운 섬리의 은혜로 우리 군인들은 인류를 위한 희망과 영감으로 싸워 역사적 도시 서울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 앞에서 주기문을 다 낭독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맥아더 장군의 손을 꼭 잡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우리 민족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였다.

맥아더는 명령 불복종으로 해임 당하였지만 그는 중국 본토를 폭격하면 소련이 결코 개입 못한다고 보았는데, 그의 판단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이 더 많다. 한국은 통일의 기회를 잃은 셈이다. 그레함과 많은 미국 북유럽의 지도자들은 유엔이 결코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한국은 17개 유엔 참전국에 감사하지만, 당시 영국이 가장 강력하게 맥아더의 만주 폭격을 반대하였다. 미국 북유럽의 자들의 통찰력을 무시할 수 없다. hjun01@hanmail.net

(13면에서 계속)

예수님 저에게 오세요. 성령님 저에게 오세요. 저에게 오셔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한 후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위로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

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 형제들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고후1:3-10).

yeonghui.mcdonald@gmail.com

(4면에서 계속)

그 화실에 유럽의 집시댄서 여자가 들어왔다가 그 피흘림의 그림을 보고 울며 회개하게 되었고 드디어 환관에 붙인 그 그림을 본 진센돌 박사야 결단의 눈물을 흘린다. 결국 그를 통해서 경건주의 모라비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고, 요한 웨슬레가 이를 통하여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감리교를 세우고, 유럽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미국 의 요나단 에드워드 대각성운동과 연결되고 세계전체의 불을 붙였고, 드디어 한국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1866년 영국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한국 땅에 뿌려지면서 한국에 북유럽화가 산업화가 민주화가, 실로 놀라운 역사적 발전이 있다. 이름도 없는 집시 여자 하나의

회심이 진센돌프를, 세상을 살린 것이다. 내가 오늘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한다. 오늘 한국의 위기라고들 입을 모으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어떻게 해서? 위기의 늪에 빠졌는가? 거저 영에 붙잡혀서 허덕이는가? 성도들이, 교회가 투쟁이 없고, 씨름이 없고, 무력해진 모습이 안타까운 시기이다. 배고픔은 이겼는데, 배부름은 이기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마치 한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미국과의 동맹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가.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가! 교회를 다 불살라 버리고, 목사들을 다 죽이고, 교인들을 다 말살해 버리고... 백성들의 배는 옥수수, 기생충으로 가득 채우고!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인간을 영적인, 영생하는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고귀한 교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물질의 하나로 보는 자들, 유물론자들, 결국 세상을 파괴하는 마귀의 세력들! 그들을 쫓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산다! 목사가 살면 교회가 산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충만하면 마귀는 쫓겨가고 세상은 살아난다. 내가 살아가서 세상을 살려야 한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해답이다"라는 확신으로 도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의하여 세상이 산다! 그 한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바로 그 한사람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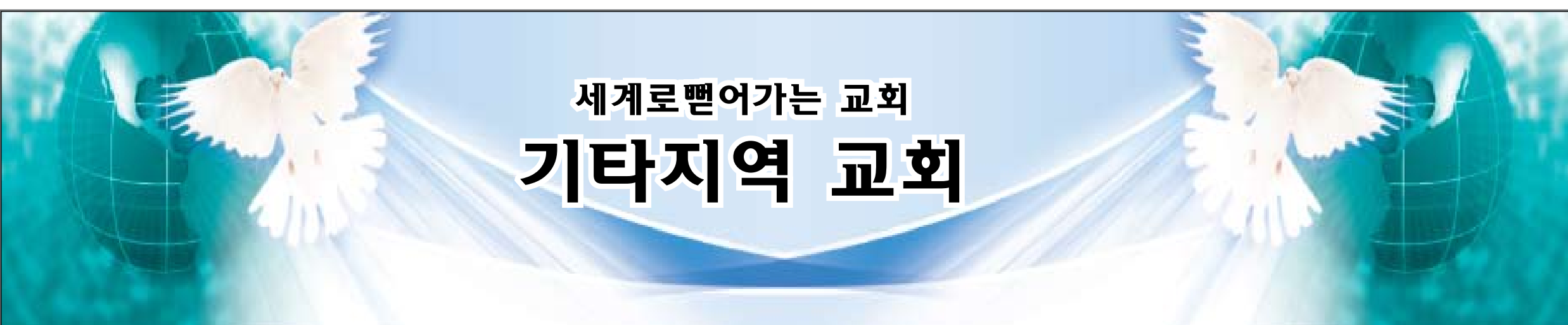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details, including Galilee, Wungo, Bexco, Benel, Boston, Salt, etc.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51)

8.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12)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이 이야기는 한인 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자 혹은 교사"라는 카테고리에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들이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고자 할 때, 우리 교사들이 어떠한 자질 혹은 역량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질 혹은 역량 5가지-소명, 신앙과 영성,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지식, 교육학적 기술, 그리고 삶에서의 도덕적 신앙적 모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지난 이야기에서는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그 첫 번째로 교사의 "소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신앙과 영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자의 자질 그 두 번째는 신앙 및 영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교회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육자들이 성숙한 신앙과

에 대한 명확한 상이 무엇인지와 우리 교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과 영성을 소유하도록 독려하고 교육해야 하는 당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에게 가장 선행되어야 할 질문은 "우리 교육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는, 그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과 영성이란 과연 무엇인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과 영성이란 간단히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영적인 성숙을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과 영성이란 또한 성경의 논리와 관점으로, 올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세상과 모든 관계들을 해석하고, 모든 행위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과 영성이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덧붙이거나, 자의적이고 백락 없는 해석으로 자기 좋을 대로 지어 내는 일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과 영

들을 배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 및 영성에 대한 이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성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해도 그 신앙 및 영성의 표현은 매우 다양할 수 있고, 사실 그 다양성이말로 성경적 의미에서 봐도 매우 아름다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우 비성경적인 양태의 신앙 및 영성에 대한 이해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비성경적인 양태의 신앙 및 영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이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강하게 교육하고자 할 때, 이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교회들 안에 팽배해 있는 신비주의적 신앙과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신비주의적 신앙과 영성을 유일하게 올바른 것으로, 가장 성숙한 형

교육자가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과 영성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 신비주의적 신앙과 영성을 다음세대에 주입하려는 열성이 문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통합교육이 목표하는 것이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 즉 성경을 모든 성경이 증거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진행하여야 할 교육자들이 성숙한 신앙 및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단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광범위하게 표현되는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보다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이를 제대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자들은 우리 다음세대들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과 영성을 갖도록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 자신들이 먼저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과 영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슈는 현재 우리 교사들의 신앙이 얼마나 바쁘다 혹은 교사들에게 영성이 있다 없느냐에 대한 감론을 막도 아니고, 교사들은 반드시 성숙한 신앙과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뻔 한 당위에 대한 재 확인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슈는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과 영성

은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와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동의와 깨달음이 있으며, 이성과 감성의 균형이 있으며, 실제 삶에서의 도덕적 실천이 그 말과 의 일관성이 있으며, 인격적인 성숙이 있으며, 그 논리적 전개에는 억지스럽거나 무조건적인 세뇌가 아닌 권위 있는 설득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완성된 신앙과 영성을 가져야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신앙과 영성이 올바른 줄로 알고, 그 방향으로 향하여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자들이 때때로 위와 같은 성경적인 신앙과 영성이 아니라 매우 비성경적인 신앙과 영성-그것이 진정한 신앙과 영성이라 믿을 수 있을 지 의문이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성만 제대로 잡고 있다면 설사 교사가 아직 조금 연약하고 모자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성숙해 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아주 견고하고 넘치더라도 방향성이 틀렸다면, 오히려 그 견고함과 넘침이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왜곡된 방향성으로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인

태의 신앙과 영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이러한 굳은 믿음을 토대로, 이러한 신앙과 영성을 우리 다음세대들을 주입하고 교육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아주 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말입니다(이러한 신비주의적 신앙과 영성이 우리 교회들에 만연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한국 전통의 사머니즘적 영향이라거나, 미국적 신사도 운동의 영향이라거나 등등 많은 해석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것은 오늘 이야기에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적 신앙과 영성은 초이성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반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신실한 기도, 도덕적 성찰과 인격적 성숙은 등한시하고 오히려 직통계시와 거짓 방언, 이적과 병고침 등을 신봉하고 이러한 것들을 성숙한 신앙, 깊은 영성의 표징으로 믿으며, 우리 다음세대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들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이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고, 엄격하게 경계하며, 우리 교사들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과 영성의 방향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과 영성을 갖도록 교육할 수 있게 세심하게 신경 쓰고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yahoo.com

월 성령의 인도(고전12:1-3)찬178장

은밀하게 조용히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는 신자생활의 가장 중요한 증표입니다. 어떻게 그의 인도를 받습니까? 첫째, 신령한 것에 사모심을 가져야 합니다(1). 신령한 것이라 하나님과의 교화를 늘 갖게 하는 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3). 성령을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가 주되심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 말은 자신이 그의 종됨을 의식하고 순종

하는 삶 곧, 언약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창세전에 약속된 언약을 성취하려는 데 있습니다. 셋째, 예수를 나의 주로 알게 하십시오(3). 성령이 오심으로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의 길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내 것으로 삼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화 성령의 다양한 역사(고전12:4-7)찬206장

성령의 은사에 관한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사도의 역동적 은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합니다(4). 여러 가지 은사가 같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시대가 흔락할수록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여러 직분과 사역으로 나타납니다(5-6).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하게 나타나

므로, 어느 하나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경시할 때 분쟁과 무질서를 가져오며 성령의 길의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나타남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7). 교회의 유익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온갖 은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임을 넓게 열어 간구하십시오.

수 성령의 은사-지혜와 지식의 말씀(고전12:8)찬378장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이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에게 바른 지식을 가지게 하시며 바른 지혜로 적용하십니다.

새 법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더 견고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성경을 깊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첫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설교자와 신학자들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정기적인 가르침과 설교를 행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식의 은사를 통해 교회가 말씀위에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사람이 될 때 심겨진

둘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깨달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일입니다. 역시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목 성령의 은사-믿음과 신유와 능력(고전12:9)찬192장

교회사역을 위해 주어진 세 가지, 믿음과 신유와 능력의 은사는 교회부흥을 위해 필요한 은혜입니다. 첫째, 믿음의 은사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믿음에서 시작해 난관을 당해 의기소침할 때 견디며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병 고치는 은사는 주님과 사도의 절대적 신유와 구분되나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교회가 병든 자를 기도함으로 치유하는 일은

이 은사의 나타남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연적 치료를 초월한 방법이기에는 더 조심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계시성을 갖지 않으나 초자연적 치유는 이미 복음 속에 약속된 것이기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셋째, 능력의 은사는 앞선 두 은사와 관계됩니다. 큰 문제가 가로놓일 때 능력의 나타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유익을 위해 이 은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금 성령의 은사-예언, 방언, 영분별 은사(고전12:10)찬174장

같은 성령은 자신의 뜻에 따라 예언, 방언, 방언언어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두 교회를 위해와 진리 안에 자라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예언의 은사는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당, 점쟁이같이 호기심을 일으킬 목적은 주의해야 하나 교회 유익을 위해 예언하는 것은 성령의 뜻에 달려있으니 제한시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둘째, 방언은 사역 정경을 완성

한 후 사라졌다고 하는 주장은 사도의 가르침에 충실치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주께서 기뻐하시면 방언의 은사로 개인과 교회는 영적 유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영분별의 은사는 여전히 말씀을 기준해 모든 일에 적용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의 지침을 따라 성령의 은사를 귀히 여기고 무질서해 욕으로 마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토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이유(고전12:11)찬177장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귀한 도구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한 성령이 일하십니다. 각양 은사와 사역과 직분이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로 그 열매가 효과적입니다. 둘째, 성령이 자신의 뜻에 따라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구함이 성령의 소원과 일치해야 하고 탐욕에 따른 간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소원을 따라 그 은사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신자는 각기 정해진 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은사구원의 성장과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약속된 것입니다. 받은 사물을 나타내도록 회개와 기도에 힘쓰십시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h4>금란교회</h4> <p>담임목사: 김정민 www.kumran.org Tel: (82)2-460-7000, Fax: (82)2-436-5770</p>	<h4>든든한교회</h4> <p>담임목사: 장향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p>	<h4>로마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p>	<h4>새이덴교회</h4> <p>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p>	<h4>성문교회</h4> <p>담임목사: 황정식 Tel: (02)2-264-3191~3, (02)2-264-3184</p>	<h4>성실교회</h4> <p>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02)2-998-9998, Fax: 3927-1008</p>	<h4>성일교회</h4> <p>담임목사: 김정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p>
<h4>수정교회</h4> <p>담임목사: 조일래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p>	<h4>승중교회</h4> <p>담임목사: 박상훈 Tel: (02)732-2341~3, 팩스: (02)389-2235</p>	<h4>시온소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p>	<h4>신길교회</h4> <p>담임목사: 이기용 Tel: (82)2-842-1968, 팩스: (011)82-2-842-1968</p>	<h4>신천교회</h4> <p>담임목사: 송용결 Tel: (02)418-0481, Fax: (02)422-0751</p>	<h4>신촌교회</h4> <p>담임목사: 박노훈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p>	<h4>안암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준호 Tel: (02)2-926-4508, Fax: 926-4508</p>
<h4>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p>	<h4>왕성교회</h4> <p>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8-4813, 팩스: 381-2204</p>	<h4>장위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신일권 Tel: (02)842-6881, Fax: (02)842-6882</p>	<h4>주안교회</h4> <p>담임목사: 주승중 Tel: (02)32-527-2009, 팩스: 294-1103</p>	<h4>창대교회</h4> <p>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p>	<h4>청주주님의교회</h4> <p>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p>	<h4>충신교회</h4> <p>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793-7740, Fax: 793-7740</p>

인/터/뷰 자 두 사모

예배에서 힘을 얻다...Being에서 Doing으로

‘잘가’, ‘대화가 필요해’, ‘김밥’을 불러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자두. 지난 2013년 12월 목회자와 결혼해 ‘가수 자두’에서 ‘사모 자두’가 된 그녀는 세상을 향해 ‘(주님과) 대화가 필요해’를 부르며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07년 한국의 크리스천 연예인들의 신앙공동체 미제이(MEJ) 미주공연차 LA를 방문한 이후 공연으로는 10년 만에 자두와 함께하는 GBC 블레스 컨서트로 LA를 찾은 자두 사모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은혜 그 자체라고 고백했다.

“미제이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가수로 활동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엄청난 고난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함께 활동했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었으니깐요. 저 같은 경우는 기획사와의 계약이 문제가 생겼기도 했고,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해서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죠. 법정에 서야 하기도 했고요. ‘죽음’과 ‘소망’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단어잖아

동료 사모님들이 찾아와서 제 손을 꼬옥 잡고 ‘많이 힘들지? 그래 이해해’라고 말하며 측은하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대해주실까? 나는 하나도 안 힘든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같이 연예인이었다가 목사부인이 되신 분이 계시면 그렇게 살아갈 텐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목사부인이 된 자두가 겪은 시행착오는 그가 사모라면 어



을 정도였어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은 목사부인이라고 해서 어떤 관습에 매여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단지 목사의 부인이라는 정체성만 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는 관습에서 자유롭게 됐을 때 비로소 복음이 더 복음다워 될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편잡되지 않고 그대로 방송이 됐어요.”

자두는 사모가 돼서 좋은 점은 종교 색을 나타내는 것에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앞으로 주님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주님을 잘 전하는 자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목사 부인의 정체성은 놓지 않고 관습에선 자유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해결...그날에 소망 갖길

요. 그런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거나 죽음을 소망하며 살더라고요.”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던 그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였으며 평생 삶을 함께 할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서이다.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지미 리 목사(일산 조이풀교회 영어예배담당)와 결혼해 사모가 된 자두는 자신이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힘들어했던 것들을 Doing과 Being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신앙인으로 행함(Doing)은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존재(Being)가 빠진 상태에서의 행함은 결국 지치게 되지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행위중심이었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힘들었던 것이었어요.”

가수라는 연예인으로 지내다 목사의 부인이 되고나서 어려웠던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무지였다고 말했다.

“목사 부인이 되고나니 어떻게 처신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목사부인이 되니까

떻게 하고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무채색옷을 입기도 하고 찢어진 청바지는 쳐다보지도 않는 등 보여지는 부분에 치중하게 됐다. 그러다보니 결혼하기 전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하게 됐다.

“제가 목사사모가 되었다고 하니 결혼하기 전 함께 술 마시며 놀았던 친구들이 연락을 안하는 거예요. 괜히 사모라고 하니가 부담이 됐다 봐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두 그대로인데, 그리고 단지 사모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친했던 아이들과 단절이 되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모라는 위치 때문에 겪게 되는 현상에 고민을 하던 자두는 그 해법을 남편친구들에서 찾았다고 말했다.

“제 남편은 한국목사지만 영어권이에요. 친구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요. 친구목사님들 부인들을 만나봤는데 다양한 직업군에 속해 있었어요. 카리스마 있게 비즈니스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몸에 문신을 하고 서핑선수로 활동하는 분도 있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자유함이 인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제가 관습에서 자유롭게 되니까 저의 모습을 보고 커밍아웃하는 사모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목사부인이라 걸 감추고 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 몰랐거든요. 또 어른 목사님들이 저와 제 남편보고 새로운 모델이 되라고, 그래야 다음세대들이 편안하게 신앙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격려도 해주셨어요.”

그는 목회현장에서 엄마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유하거나 성도들이 즐겨워하는 걸 느끼게 됐으며 원래 내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있으니 그것 때문에 세상도 환영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하나의 예가 MBC 예능프로그램인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였다. 자신이 목사사모란걸 밝히지 않았는데 진행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서 놀랐다고 밝혔다.

“종교방송이 아니라 편집이 될 줄 알았어요. MC오빠들이 제가 목사부인이라 걸 이야기했지만 방송에는 안 나가게

“우리가 사는 것이 교회 내에서만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관습에 얽매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건 결국 교회잔치만 하게 되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자유롭게 될 때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게 되거든요.”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리는 것이라 밝혔다.

“어떤 것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한 것들이 참 많죠. 하지만 그게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기다림이 필요 한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입이 튀어나오며 하나님께 때를 쓰기도 해요. 하지만 제생각대로 안되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와 저의 시간표가 달라서이지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시는 건 아니며 그 시간이 될 때를 기다려야 해요.”

자두 사모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과정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놓인 분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임을 잊지 않고 그날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기독교 경영 전략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4)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세속적 경영모델의 권력은 경영자 섬기기

섬기는 자로서의 경영자

경영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법과 세속적인 접근법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세속적인 경영 모델에서 권력은 보통 경영자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인 경영 모델에서는 경영자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권력을 행사한다.

권력은 도덕 중립적인 것이어서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 권력 자체는 결코 부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에 의해 부패하게 되고 그들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한다.

“권력행사의 세속적인 모델과 성경적 모델의 비교” Table2은 경영 조직 내에서 경영자가 일상적으로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세속적 모델과 성경적인 모델을 비교해서 보여 주고 있다.

항목	세속적인 모델	성경적 모델
의사결정권	경영자는 의사 결정권을 독점하려고 한다.	경영자는 의사 결정권을 기꺼이 나누어준다.
계획의 수립과 수행	경영자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급자를 그 계획을 수행하는데 이용한다.	경영자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하급자나 다른 사람들을 참가시키는데 열성적이다.
인정과 보상	경영자는 자신에게 돌아올 인정과 보상을 추구한다.	경영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추구한다.
아이디어	경영자는 자기와 대립하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만을 밀고 나가기 한다.	경영자는 자기 하급자들의 아이디어를 중시 시키고 장려하며,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가 자기 것보다 나은 경우에서 위협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하급자	경영자는 하급자들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경영자는 하급자들을 조직의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본다.
관심사	경영자는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경영자의 첫 번째 관심사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Table 2. 권력행사의 세속적인 모델과 성경적 모델의 비교

일반적으로 경영자가 섬겨야 하는 네 가지 집단은 (1)부하 직원들 (2)상사들 (3)동료들 (4)고객들이다.

먼저, 부하 직원들의 리더와 경영자로서 당신의 주된 역할은 그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섬기는 것이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므로써 그들을 섬기기에 앞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부하 직원들과 개인적으로 혹은 소집단으로 만나서 그들의 직무와 관련된 필요(Needs)를 좀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두 번째, 상사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섬겨야 한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매주 간부회의(Staff Meeting)에 참석한다. 그러나 그러한 회의에서의 만남 이외에, 어떻게 해야 상사의 필요를 좀 더 잘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상사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동료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동료들을 경쟁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료들을 섬긴다는 것이 가장 어렵게 여겨진다. 또한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그러나 동료들을 돕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던 성경적 경영 철학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우리는 조직이 조직의 일원과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손님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 고객들의 욕구는 자주 변화한다. 과거의 욕구가 미래에도 동일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은, 자발성과 변화하는 욕구를 알아내고자 하는 노력에 정비례 한다.

dr.jameskoo@yahoo.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